



2021 GUESSS

2021 Global University
Entrepreneurial
Spirit Students' Survey

2021 글로벌 대학생 기업가정신 조사

2021 Global University Entrepreneurial Spirit Students' Survey

2021 글로벌 대학생 기업가정신 조사(GUESSSS)

“2021 GUESSS is supported by EY as the global project partner.”



Part 01 기초분석

01. 서론 ————— 3

- 1.1. 추진 배경 3
- 1.2. 이론적 모델 3
- 1.3. 프로젝트 기획 및 자료 수집 과정 4

02. 인구통계학적 특성 ————— 5

- 2.1. 응답자 통계 5
- 2.2. 응답자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9

03. 직업 선택 의사 ————— 10

- 3.1. 졸업 후 진로 10
- 3.2. 창업 의사 11
- 3.3. 직업 선택에 대한 인식 12

04. 창업 의지의 결정 요인 ————— 14

- 4.1. 대학 요인 14
- 4.2. 창업 의지 22
- 4.3. 가정 요인 29

Part 01 기초분석

05. 예비 창업자	31
5.1. 일반 정보	31
5.2. 창업을 위한 활동	35
5.3. 창업 세부 정보	36
5.4. 기업가적 지향성	38
06. 창업자	40
6.1. 일반 정보	40
6.2. 창업 동기와 목표	45
6.3. 창업자 개인 특성	48
6.4. 회사 성과	50
6.5. 가족의 지원	50
07. 가족 기업	52
7.1. 잠재적 사업 승계자	52
7.2. (창업자의 경우) 가족 사업과의 관계	56
08. 요약 및 결론	58

Part 02 심층분석

01. 서론 ————— 65

- 1.1. 추진 배경 65
- 1.2. 심층분석을 위한 연구 방법론 65
- 1.3. 심층분석 대상 변수 및 분석 요인 선정 66

0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 71

- 2.1. ‘대학(University) 항목’ 관련 요인분석 결과 71
- 2.2.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Entrepreneurship)’ 관련 요인분석 결과 .. 74
- 2.3. ‘창업을 한 경우(능동적 창업가)’ 관련 요인분석 결과 78
- 2.4 ‘(예비) 초기 창업가’ 관련 요인분석 결과 78

03. 심층분석 ————— 82

- 3.1. 교차분석을 위한 주요 통계변수 설정 82
- 3.2. ‘대학(University)’ 요인변수 대상 주요 교차분석 83
- 3.3. ‘기업가정신 일반적인 생각’ 요인변수 대상 주요 교차분석 88
- 3.4. ‘(예비) 초기 창업가’ 요인변수 대상 주요 교차분석 91

04. 요약 및 결론 ————— 97

Part 03 부록

부록: GUESSS 2021 설문지 ————— 101

Part 01 기초분석

〈표 1〉 2021-21 GUESSS 조사 개요	4
〈표 2〉 참여 대학	5
〈표 3〉 응답자 학력 분포	6
〈표 4〉 응답자 전공 분포	7
〈표 5〉 응답자 연령 분포	7
〈표 6〉 응답자 성별 분포	8
〈표 7〉 응답자 혼인 여부	8
〈표 8〉 응답자 국적 분포	8
〈표 9〉 응답자 주관적 삶의 만족도	9
〈표 10〉 졸업 후 진로	10
〈표 11〉 5년 후 진로	11
〈표 12〉 향후 창업 의사	12
〈표 13〉 현재 창업 여부	12
〈표 14〉 직업 선택에 대한 의식	13
〈표 15〉 대학의 기업가정신 관련 환경	15
〈표 16〉 대학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효과	17
〈표 17〉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 수강 여부	19
〈표 18〉 평등한 교육환경 지원 여부	21
〈표 19〉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원 여부	21
〈표 20〉 기업가적 의도	23
〈표 21〉 기업가적 태도	25
〈표 22〉 기업가적 자아효능감	27
〈표 23〉 통제 위치	28

Part 01 기초분석

〈표 24〉 부모님 사업 운영 여부	30
〈표 25〉 창업 시 주위의 반응	30
〈표 26〉 예비 창업자 성별 분포	31
〈표 27〉 예비 창업자 전공 분포	32
〈표 28〉 창업 완료 예정 시기	32
〈표 29〉 졸업 후 주요 직장으로서의 창업 여부	33
〈표 30〉 예비 창업자 이전 창업 경험	33
〈표 31〉 사업 아이디어 출처	34
〈표 32〉 코로나19로 인한 창업 계획 영향 여부	34
〈표 33〉 사업 운영 시 주안점	34
〈표 34〉 준비 중인 사업 분야	35
〈표 35〉 창업을 위해 하고 있는 활동	36
〈표 36〉 단독/공동 창업 의향	36
〈표 37〉 단독 창업 이유	37
〈표 38〉 예비 공동 창업자 중 여성/친척/동료 학생의 수	37
〈표 39〉 창업할 회사에서 본인의 지분율	38
〈표 40〉 예비 창업자의 기업가적 지향성	38
〈표 41〉 창업자 성별 분포	40
〈표 42〉 창업자 전공 분포	40
〈표 43〉 창업자 회사 설립연도	41
〈표 44〉 창업자 회사 정규직 근로자 수	42
〈표 45〉 창업자 소유 지분율	42
〈표 46〉 졸업 후 주요 직장으로서의 현재 사업	43

Part 01 기초분석

〈표 47〉 코로나19로 인한 창업 영향 여부	43
〈표 48〉 창업자 이전 창업 경험	43
〈표 49〉 창업자 사업 분야	44
〈표 50〉 공동소유자 여부	45
〈표 51〉 공동 창업자 중 여성/친척/동료 학생의 수	45
〈표 52〉 창업자의 창업 동기	46
〈표 53〉 창업자의 사업 운영 철학	46
〈표 54〉 창업자의 사업 운영 목표	47
〈표 55〉 창업가로서의 생활 경험	48
〈표 56〉 창업가로서의 행동	49
〈표 57〉 회사 성과	50
〈표 58〉 창업자 가족의 지원	51
〈표 59〉 부모님 회사 업력 분포	52
〈표 60〉 부모님 회사 규모	53
〈표 61〉 부모님 회사 운영 주도 여부	53
〈표 62〉 가족 회사 소유 지분율	53
〈표 63〉 본인의 가족 회사 지분율 보유 여부	54
〈표 64〉 가업 인식률	54
〈표 65〉 가족 회사 근로 경험	54
〈표 66〉 형제 및 자매 수	55
〈표 67〉 부모님 회사 사업 분야	55
〈표 68〉 부모님 회사 승계 인식	56
〈표 69〉 부모님 회사 성과 평가	56

Part 01 기초분석

<표 70> 부모님 회사-본인 회사 간 동종 산업 종사 여부 57
<표 71> 부모님의 학생 회사 지분 소유 여부 57
<표 72> 부모님 회사-본인 회사 간 사업거래 여부 57

Part 02 심층분석

〈표 1〉 설문분류에 따른 설문코드와 요인분석 여부	66
〈표 2〉 창업여부에 따른 설문응답 결과	67
〈표 3〉 ‘대학 관련’ 설문 요인변수	68
〈표 4〉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 설문 요인변수	68
〈표 5〉 ‘능동적 창업가’ 설문 요인변수	69
〈표 6〉 ‘(예비) 초기창업가’ 설문 요인변수	70
〈표 7〉 ‘대학(University)’ 요인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71
〈표 8〉 ‘대학(University)’ 요인 공통성(Communality) 분석 결과	72
〈표 9〉 ‘대학(University)’ 요인의 설명된 총분산	72
〈표 10〉 ‘대학(University)’ 요인 회전된 성분행렬 분석 결과	73
〈표 11〉 ‘대학(University)’ 관련 새로운 요인변수 정의	74
〈표 12〉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Entrepreneurship)’ 요인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74
〈표 13〉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Entrepreneurship)’ 요인 공통성(Communality) 분석결과	75
〈표 14〉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Entrepreneurship)’ 요인의 설명된 총분산	75
〈표 15〉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Entrepreneurship)’ 요인 회전된 성분행렬(베리맥스) 분석 결과	77
〈표 16〉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Entrepreneurship)’ 관련 새로운 요인변수 정의	78
〈표 17〉 ‘(예비) 초기 창업가’ 요인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79
〈표 18〉 ‘(예비) 초기 창업가’ 요인 공통성(Communality) 분석 결과	79

Part 02 심층분석

〈표 19〉 ‘(예비) 초기 창업가’ 요인의 설명된 총분산	80
〈표 20〉 ‘(예비) 초기 창업가’ 요인 회전된 성분행렬(베리맥스) 분석 결과	81
〈표 21〉 ‘(예비) 초기 창업가’ 관련 새로운 요인변수 정의	81
〈표 22〉 교차분석을 위한 통계변수 설정	82
〈표 23〉 ‘대학(University)’ 요인변수 - 인구통계학적 특성 간 주요 교차분석 결과	83
〈표 24〉 ‘대학(University)’ 요인변수 - 경력목표 특성 간 주요 교차분석 결과	85
〈표 25〉 ‘대학(University)’ 요인변수 - (예비) 초기창업가 특성 간 주요 교차분석 결과	87
〈표 26〉 ‘기업가정신 일반적인 생각’ 요인변수 - 인구통계학적 특성 간 주요 교차분석 결과	89
〈표 27〉 기업가정신 일반적인 생각’ 요인변수 - 경력목표 특성 간 주요 교차분석 결과	90
〈표 28〉 ‘(예비)초기창업가’ 요인변수 - 인구통계학적 특성 간 주요 교차분석 결과	92
〈표 29〉 ‘(예비)초기창업가’ 요인변수 - 경력목표 특성 간 주요 교차분석 결과	94
〈표 30〉 ‘(예비)초기창업가’ 요인변수 - (예비) 초기창업가 특성 간 주요 교차분석 결과	95

Part 01 기초분석

〈그림 1〉 대학의 기업가정신 관련 환경 비교(2018-2021)	15
〈그림 2〉 대학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효과 비교(2018-2021)	17
〈그림 3〉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 수강 여부 비교(2018-2021)	19
〈그림 4〉 기업가적 의도 비교(2018-2021)	24
〈그림 5〉 기업가적 태도 비교(2018-2021)	25
〈그림 6〉 기업가적 자아효능감 비교(2018-2021)	27
〈그림 7〉 통제 위치 비교(2018-2021)	29

• PART 01 •

2021 GUESSS 한국 보고서 기초분석

| 2021 글로벌 대학생 기업가정신 조사(GUESSS) |

01

서론

1.1. 추진 배경

GUESSS는 ‘Global University Entrepreneurial Spirit Students’ Survey’의 약자로 대학생들의 창업 의도와 활동을 조사한 국제 연구 프로젝트이다.

본 보고서는 한국 국가 보고서로, 보고서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학생들의 창업 의도와 활동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관찰
- 새로운 벤처와 기업가적 커리어로의 의향을 지닌 학생들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 기업가적 활동을 위한 대학의 지원 활동 관찰 및 평가

GUESSS의 설문 내용은 학생들의 창업 의지, 대학 내 기업가정신 지원 환경, 예비 창업가와 학생 창업가의 현황과 특성 등을 주로 하여 조사 당시의 사회적 이슈와 맞물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도의 문항이 사회 및 회사 내 권력 관계, 사내 성비위, 사내 문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2021년도 조사는 대학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지원 여부, 코로나 19의 영향, 예비/학생 창업가의 행동 특성 등에 주목하였다.

1.2. 이론적 모델

GUESSS의 이론적 기반은 Theory of Planned Behavior¹⁾이다. TPB는 특정 행동에 대한 의도가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기준, 인지된 행동제어와 같은 3가지

1)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요소에 의해 설명된다는 이론이다.

1.3. 프로젝트 기획 및 자료 수집 과정

GUESSS 프로젝트는 스위스의 University of Bern과 KMU-HSG(The Swiss Research Institute of Small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at the University of St.Gallen)가 주관하며, University of Bern의 교수인 Philipp Seiger가 총괄하고 있다. 또한 EY에서 국제 프로젝트의 후원을 담당하고 있다. 나라별로 하나의 대표가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가 전달된다. 한국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대표로 있으며 격년으로 전국 대학생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2020-21 GUESSS의 조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표 1〉 2021-21 GUESSS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 대학생
조사 주기	격년(2년마다)
조사 기간	2021.2.19. ~ 2021.6.30.
조사 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유효표본	총 1,220개
자료 수집 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본 보고서에 사용된 국제 데이터는 한국을 포함하여 58개국 약 267,000개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02

인구통계학적 특성

2.1. 응답자 통계

본 조사는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참여 대학은 다음과 같다.

〈표 2〉 참여 대학

연번	대학명	비고
1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원도 강릉시
2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충청북도 충주시
3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4	경기대학교	경기도 수원시
5	경민대학교	경기도 의정부시
6	경운대학교	경상북도 구미시
7	계명대학교	대구광역시
8	광운대학교	서울특별시
9	대구한의대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10	동국대학교	서울특별시
11	동양대학교	경상북도 영주시
12	명지전문대학	서울특별시
13	목원대학교	대전광역시
14	백석대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15	상명대학교	서울특별시
16	순천향대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17	송실대학교	서울특별시
18	안양대학교	경기도 안양시
19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강원도 원주시
20	영남대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연번	대학명	비고
21	인천대학교	인천광역시
22	인하공업전문대학	인천광역시
23	전주대학교	전라북도 전주시
24	중앙대학교	서울특별시
25	한국교통대학교	충청북도 충주시
26	한신대학교	경기도 오산시
27	호남대학교	광주광역시
28	기타	사전에 참여 신청하지 않은 대학들

응답자의 학력 분포는 학사과정이 85.9%, 석사 과정이 3.1%, 박사 과정이 1.2%, 기타(MBA 등)가 9.9%로 조사되었다.

〈표 3〉 응답자 학력 분포

구분	빈도	비율(%)
학사	1,041	85.9
석사	37	3.1
박사	14	1.2
기타(예 : MBA)	120	9.9
합계	1,212	100.0

응답자의 전공은 건축을 포함한 공학(23.3%) 및 의료/생명(25.2%)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과학(심리학, 정치학, 교육학 등)이 9.4%, 예술/인문(문화, 역사, 언어, 철학, 종교 등)이 7.8%, 경영이 7.5%, 컴퓨터/IT가 4.5%, 자연과학이 4.2%, 수학 및 예술과학(미술, 디자인, 연극, 음악 등)이 각 3.4%, 경제가 1.9%, 법학이 0.3%의 비율로 나타났다.

〈표 4〉 응답자 전공 분포

전공	빈도	비율(%)
예술/인문(문화, 역사, 언어, 철학, 종교 등)	95	7.8
경영	91	7.5
컴퓨터/IT	55	4.5
경제	23	1.9
공학(건축 포함)	284	23.3
의료/생명	308	25.2
법학	4	0.3
수학	42	3.4
자연과학	51	4.2
예술과학(미술, 디자인, 연극, 음악 등)	42	3.4
사회과학(심리학, 정치학, 교육학 등)	115	9.4
기타	110	9.0
합계	1,220	100.0

응답자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24세 이하(2021년 기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비율은 81.4%이다. 25세~30세는 전체의 14.1%, 31세 이상은 4.6%로 조사되었다.

〈표 5〉 응답자 연령 분포

연령대	빈도	비율(%)
24세 이하 (1998년생~)	873	81.4
25~30세 (1992년생~1997년생)	151	14.1
31세 이상 (1991년생~)	49	4.6
합계	1,073	100.0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54.7%, 남성이 45.1%, 그 외 0.2%이다. 국제 데이터의 경우 여성이 60.3%, 남성이 39.1%로 조사되어 우리나라의 남성 응답자

비중이 국제 평균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표 6〉 응답자 성별 분포

구분	남성		여성		그 외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국	548	45.1	665	54.7	3	0.2	1,216	100.0
전체국가	104,439	39.1	160,872	60.3	1,632	0.6	266,943	100.0

응답자의 혼인 여부는 95.9%가 미혼이다.

〈표 7〉 응답자 혼인 여부

구분	빈도	비율(%)
미혼	1,137	95.9
기혼	41	3.5
그 외	8	0.7
합계	1,186	100.0

응답자의 국적은 99.6%가 한국 국적이다.

〈표 8〉 응답자 국적 분포

구분	빈도	비율(%)
한국	754	99.6
기타	3	0.4
합계	757	100.0

2.2. 응답자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

아래의 5개 문항을 통해 응답자의 주관적 삶의 만족도(subjective well-being)를 측정하였다.

- 대부분의 면에서 나의 인생은 내 이상과 가깝다.
- 나의 인생의 조건은 훌륭하다.
-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 지금까지 나는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었다.
- 만약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응답자들의 삶의 만족도는 평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히 본인의 인생이 이상에 가깝다던가 조건이 아주 훌륭하다고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삶에 만족하는 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만약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응답자 주관적 삶의 만족도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대부분의 면에서 나의 인생은 내 이상에 가깝다	1,214	4.00	1.438
나의 인생의 조건은 훌륭하다	1,210	4.29	1.446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1,206	4.62	1.538
지금까지 나는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었다	1,205	4.18	1.487
만약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1,207	3.35	1.756

03

직업 선택 의사

대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및 5년 후의 진로, 창업 의지 및 직업 선택 요인을 조사하였다.

3.1. 졸업 후 진로

“귀하가 계획한 졸업 후 진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23.0%의 학생들은 아직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22.2%의 학생들은 대기업 취업(250인 이상), 21.0%의 학생들은 공공기관 취업, 15.6%의 학생들은 중견기업 취업(50-249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졸업 후 진로가 창업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7.2%로 조사되었다.

〈표 10〉 졸업 후 진로

구분	빈도	비율(%)
중소기업 취업(1-49인)	59	4.8
중견기업 취업(50-249인)	190	15.6
대기업 취업(250인 이상)	271	22.2
비영리기구 취업	7	0.6
연구기관 취업(학업 경력 개발 목적)	60	4.9
공공기관 취업	256	21.0
창업	88	7.2
부모님 사업 승계	6	0.5
기타 사업 승계	3	0.2
기타/아직 잘 모름	280	23.0
합계	1,220	100.0

“귀하가 계획한 5년 후 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24.9%의 학생들은 대기업 취업(250인 이상), 23.8%의 학생들은 공공기관 취업이라고 응답하며 졸업 후의 진로와 크게 다르지 않게 조사되었다. 반면 5년 후 진로를 창업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11.7%로 조사되어, 졸업 후 당장 창업을 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1〉 5년 후 진로

구분	빈도	비율(%)
중소기업 취업(1-49인)	30	2.5
중견기업 취업(50-249인)	132	10.8
대기업 취업(250인 이상)	304	24.9
비영리기구 취업	10	0.8
연구기관 취업(학업 경력 개발 목적)	60	4.9
공공기관 취업	290	23.8
창업	143	11.7
부모님 사업 승계	10	0.8
기타 사업 승계	7	0.6
기타/아직 잘 모름	234	19.2
합계	1,220	100.0

3.2. 창업 의사

현재 창업을 고려하거나 창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25.4%로 조사되었다. 같은 항목의 국제 데이터는 28.4%의 학생들이 창업을 준비 중이라고 응답하였다. 2018년도에 창업을 고려하거나 창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24.5%였던 것과 비교해보면 약간의 상승은 있었으나 큰 변화는 없다.

〈표 12〉 향후 창업 의사

구분	예		아니요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국	310	25.4	910	74.6	1,220	100.0
전체국가	75,838	28.4	191,528	71.6	267,366	100.0

* 귀하는 현재 창업을 고려하거나 창업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응답자 중 이미 창업을 하여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4.3%로 나타났다. 2018년도에 이미 창업을 한 학생의 비중이 5.6%였던 것에 비교하면 다소 낮아졌다. 반면 국제 데이터에서는 10.8%의 학생이 이미 창업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우리나라의 학생 창업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현재 창업 여부

구분	예		아니요		합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한국	53	4.3	1,167	95.7	1,220	100.0
전체국가	28,877	10.8	238,489	89.2	267,366	100.0

* 귀하는 이미 창업을 하여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3.3. 직업 선택에 대한 인식

대학생들의 직업 선택에 대한 인식은 “나는 직업이나 회사를 선택할 때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 “나는 고위험/고수의 직업보다 고용 안정성이 높은 직업을 선호한다”, “나는 직업에 대한 위험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한다”의 세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음을 1점, 매우 그러함을 7점으로 한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나는 직업이나 회사를 선택할 때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는 4.14

점, “나는 고위험/고수익 직업보다 고용 안정성이 높은 직업을 선호한다”는 4.91 점, “나는 직업에 대한 위험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한다”는 3.99점으로 나타났다.

국제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나라 학생의 위험 회피성이 조금 더 두드러진다. 직업 또는 회사 선택 시 위험 감수 의향은 국제 평균인 5.13점에 비해 낮은 반면, 안정성이 높은 직업 선호와 위험 회피 의식은 국제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다.

〈표 14〉 직업 선택에 대한 의식

구분	한국			전체국가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나는 직업이나 회사를 선택할 때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	1,219	4.14	1.608	266,324	5.13	1.561
나는 고위험/고수익 직업보다 고용 안정성이 높은 직업을 선호한다	1,213	4.91	1.517	263,487	4.33	1.735
나는 직업에 대한 위험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한다	1,210	3.99	1.357	261,809	3.46	1.763

* 귀하는 직업 선택에 관한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전혀 그렇지 않음, 7=매우 그러함)

04

창업 의지의 결정 요인

대학의 기업가정신 지원 환경과 수업 효과, 개인의 기업가적 의도 및 태도, 가정에서의 영향 등을 조사하였다.

4.1. 대학 요인

응답자들이 재학 중인 대학교에 대하여 대학교의 환경, 교육 프로그램,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지원 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응답자들이 재학 중인 대학교의 환경을 아래의 질문을 통해 측정하였다. 각 질문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1점, 매우 그러함을 7점으로 한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 대학은 나에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자극한다.
- 대학은 창업가의 길을 걷는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 대학은 학생들의 창업 활동을 권장한다.

“대학은 나에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자극한다”는 3.85점, “대학은 창업가의 길을 걷는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는 3.82점, “대학은 학생들의 창업 활동을 권장한다”는 4.23점으로 나타났다. 같은 항목을 국제 평균과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국제 평균보다 국내 대학의 점수가 낮게 나타나 다소 아쉬움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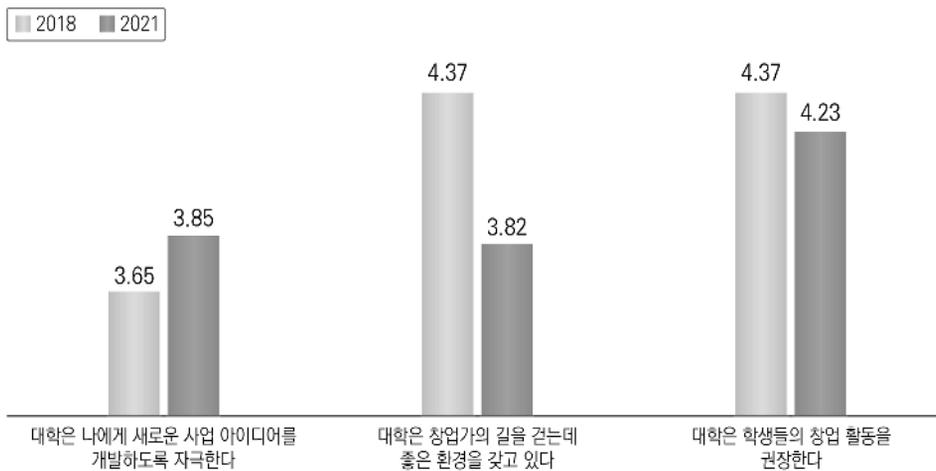
〈표 15〉 대학의 기업가정신 관련 환경

구분	한국			전체국가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대학은 나에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자극한다	1,215	3.85	1.637	265,498	4.30	1.904
대학은 창업가의 길을 걷는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1,210	3.82	1.588	261,864	4.29	1.879
대학은 학생들의 창업 활동을 권장한다	1,209	4.23	1.595	261,358	4.48	1.929

* 귀하의 대학 환경에 관한 다음의 문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전혀 그렇지 않음, 7=매우 그러함)

2018년도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대학생들은 재학 중인 대학의 환경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데는 개선이 된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창업 활동을 위한 환경은 다소 후퇴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1〉 대학의 기업가정신 관련 환경 비교(2018-2021)



대학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은 다음 5개의 문장으로 측정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음을 1점, 매우 그러함을 7점으로 한 리커트 척도를 적용하였다.

- 창업가의 태도, 가치 및 동기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 사업개시를 위해 필요한 활동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 사업개시를 위한 실무 경영 능력이 향상되었다.
- 네트워크 개발 능력이 향상되었다.
- 기회 판별 능력이 향상되었다.

대학생들의 수업 효과에 대한 결과는 기회 판별 능력 향상이 4.34점, 창업가의 태도, 가치 및 동기에 대한 이해 증진이 4.12점, 네트워크 개발 능력 향상이 4.08점, 사업개시를 위해 필요한 활동에 대한 이해 증진이 4.02점, 사업개시를 위한 실무 경영 능력이 3.85점으로 나타났다. 각 대학에서 창업에 필요한 기초 지식은 어느 정도 공급되고 있으나, 경영 실무에 필요한 지식 전달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문항을 국제 평균과 비교해 본 결과, 기회 판별 능력의 향상에 대해서는 한국 학생들이 국제 평균(4.29점)보다 더 높게 평가하였으나, 그 외 다른 문항은 국제 평균보다 수업 효과가 더 낮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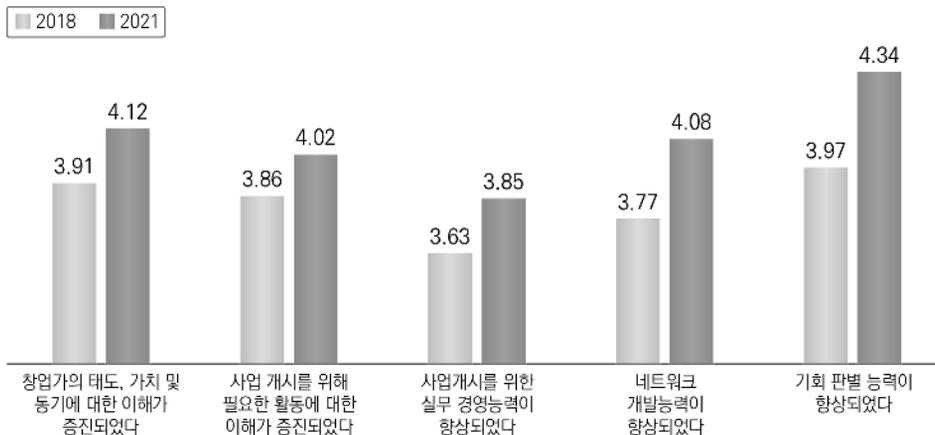
〈표 16〉 대학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효과

구분	한국			전체국가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창업가의 태도, 가치 및 동기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1,217	4.12	1.605	266,085	4.45	1.875
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활동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1,209	4.02	1.609	262,334	4.17	1.977
사업개시를 위한 실무 경영능력이 향상되었다	1,208	3.85	1.629	261,965	4.08	1.972
네트워크 개발능력이 향상되었다	1,207	4.08	1.612	261,309	4.31	1.879
기회 판별 능력이 향상되었다	1,208	4.34	1.523	260,770	4.29	1.906

* 귀하의 학업/수업에 관한 다음의 문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전혀 그렇지 않음, 7=매우 그러함)

2018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한 결과, 학생들이 체감하는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의 수업 효과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2018년도 대비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그림 2〉 대학의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효과 비교(2018-2021)



대학의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 수강 여부를 다음의 문항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 나는 지금까지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
- 나는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를 선택과목으로 들은 적이 있다.
- 나는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를 필수과목으로 들은 적이 있다.
- 나는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 재학 중인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기업가정신에 관한 명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체 1,220명의 응답자 중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43.7%로, 약 절반 이상의 학생이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를 선택과목으로 수강한 적이 있는 학생은 33.3%, 필수과목으로 수강한 적이 있는 학생은 21.5%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재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12.5%로 나타났다. 한편 재학 중인 대학의 선택 이유 중 기업가정신을 고려한 학생은 전체의 6.6%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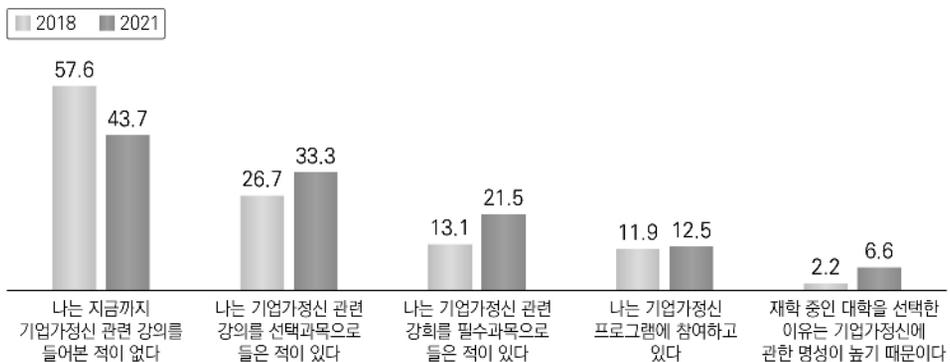
국제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 수강률이 더 높다. 국제 학생의 53.3%가 지금까지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선택·필수 과목으로서의 기업가정신 강의 수강 여부나 프로그램 참여도도 국내 대학생들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다만 대학 선택 시에 기업가정신에 관한 명성을 고려하였는가에 관한 질문은 14.3%로 우리나라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표 17〉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 수강 여부

구분	한국		전체국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나는 지금까지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	533	43.7	142,491	53.3
나는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를 선택과목으로 들은 적이 있다	406	33.3	69,843	26.1
나는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를 필수과목으로 들은 적이 있다	262	21.5	52,450	19.6
나는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153	12.5	18,295	6.8
재학 중인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기업가정신에 관한 명성이 높기 때문이다	80	6.6	38,338	14.3

2018년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 수강 여부나 프로그램 참가 여부가 크게 개선되었다. 특히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를 필수과목으로 들은 학생의 비중이 13.1%에서 21.5%로 크게 증가하여,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대학이 늘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의 비중도 57.6%에서 43.7%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3〉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 수강 여부 비교(2018-2021)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b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 지원 여부는 다음의 여섯 문항을 통해 조사되었으며, 각 질문은 전혀 그렇지 않음이 1점, 매우 그러함이 7점인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 나의 대학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저렴한 양질의 교육을 동등하게 제공한다.
- 나의 대학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 나의 대학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 나의 대학은 연구, 기술, 혁신, 기업가정신의 개발을 지원한다.
- 나의 대학은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한다.
- 나의 대학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지원한다.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저렴하면서 양질의 교육을 동등하게 제공한다는 질문은 4.93점으로 조사되었으며, 의사결정을 위한 동등한 기회 제공은 5.07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 제공은 5.10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18〉 평등한 교육환경 지원 여부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나의 대학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교육을 동등하게 제공한다	1,213	4.93	1.531
나의 대학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1,207	5.07	1.454
나의 대학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1,204	5.10	1.420

대학의 연구, 기술, 혁신, 기업가정신의 개발에 대한 지원은 4.7점으로 긍정적으로 조사되었으며, 대학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자체/기업과의 협력 또한 4.84점으로 평균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대학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위한 지원은 4.39점으로 조사되었다.

〈표 19〉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지원 여부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나의 대학은 연구, 기술, 혁신, 기업가정신의 개발을 지원한다	1,212	4.70	1.435
나의 대학은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한다	1,203	4.84	1.368
나의 대학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지원한다	1,202	4.39	1.487

4.2. 창업 의지

기업가정신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은 현재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창업을 시작하지 않은 대학생 898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들의 기업가적 의도,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자아효능감(self-efficacy), 통제 위치(Locus of control)를 조사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1점, 매우 동의함을 7점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다.

학생들의 기업가적 의도는 다음의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 나는 창업가가 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 나의 경력 목표는 창업가가 되는 것이다.
- 나는 사업 개시와 운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할 것이다.
- 나는 향후 창업을 하고자 결심했다.
- 나는 사업 개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 나는 훗날 창업을 할 뚜렷한 의지를 갖고 있다.

학생들의 기업가적 의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나는 창업가가 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문항은 3.44점으로 조사되었으며, 경력 목표로서의 창업가는 2.81점으로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사업 개시와 운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할 것이다”는 3.37점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창업에 대한 결심은 2.78점, 사업 개시에 대한 고려는 2.68점, 창업 의지는 2.67점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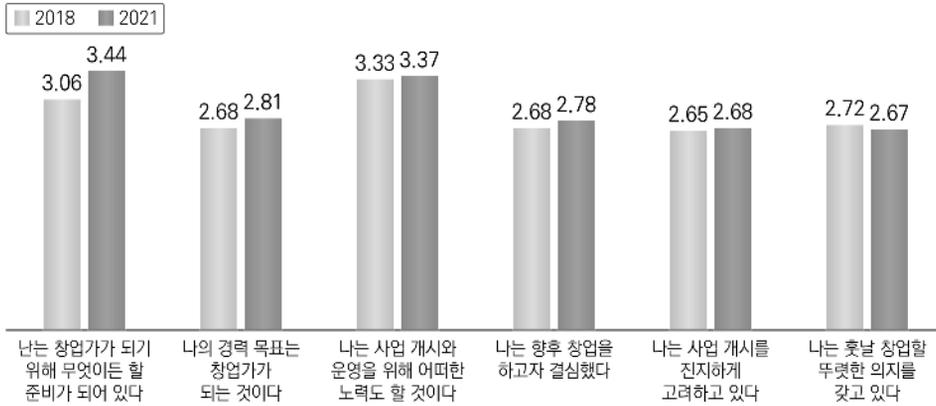
국제 데이터와 비교해보면 학생들의 낮은 기업가적 의도는 더욱 두드러진다. 모든 항목의 점수가 국제 평균보다 낮은 값을 보인다.

〈표 20〉 기업가적 의도

구분	한국			전체국가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나는 창업가가 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892	3.44	1.549	184,968	3.83	1.897
나의 경력 목표는 창업가가 되는 것이다	883	2.81	1.543	183,479	3.81	2.047
나는 사업 개시와 운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할 것이다	884	3.37	1.634	183,188	3.85	2.067
나는 향후 창업을 하고자 결심했다	886	2.78	1.614	183,060	3.82	2.107
나는 사업 개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885	2.68	1.593	182,860	3.79	2.116
나는 훗날 창업할 뚜렷한 의지를 갖고 있다	882	2.67	1.598	182,673	3.89	2.175

학생들의 기업가적 의도를 2018년도와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나 증가 폭은 크지 않으며, 미래 창업 의지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림 4〉 기업가적 의도 비교(2018-2021)



학생들의 기업가적 태도는 다음의 문항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 창업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 창업은 매력적인 경력이 될 것이다.
- 나에게 기회와 자원이 있다면 창업을 할 것이다.
- 창업은 높은 보상을 제공할 것이다.
- 여러 선택 중에서 창업이 가장 나올 것 같다.

학생들의 기업가적 태도는 대체로 평균적인 정도를 나타내었다. “여러 선택 중에서 창업이 가장 나올 것 같다”는 응답은 3.1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창업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라는 문항 또한 3.73점으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반면 “창업은 매력적인 경력이 될 것이다”, “나에게 기회와 자원이 있다면 창업을 할 것이다”, “창업은 높은 보상을 제공할 것이다”는 각각 4.54점, 4.25점, 4.10점으로 평균 정도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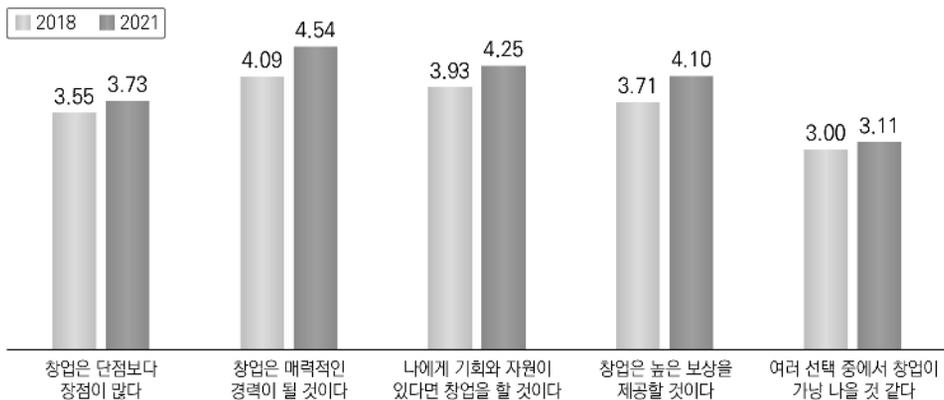
국제 데이터와 비교해 본 결과 학생들의 기업가적 태도 역시 대체로 국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보이나, 매력적인 경력으로서의 창업 항목은 유일하게 국제 평균인 4.27점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표 21〉 기업가적 태도

구분	한국			전체국가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창업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890	3.73	1.327	184,699	4.21	1.758
창업은 매력적인 경력이 될 것이다	885	4.54	1.443	183,248	4.27	1.919
나에게 기회와 자원이 있다면 창업을 할 것이다	885	4.25	1.697	183,087	4.80	1.947
창업은 높은 보상을 제공할 것이다	885	4.10	1.512	183,043	4.46	1.966
여러 선택 중에서 창업이 가장 나을 것 같다	884	3.11	1.470	182,707	3.96	1.993

기업가적 태도 또한 2018년도와 비교하여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2018년도보다 2021년도의 평균 점수가 향상되었다.

〈그림 5〉 기업가적 태도 비교(2018-2021)



기업가적 자아효능감은 아래의 창업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본인이 얼마나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여 측정하였다.

- 새로운 사업기회 발견
-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기업 내부 혁신 관리
- 지휘 및 의사소통
- 네트워크 개발 능력이 향상되었다.
-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시제품 상업화
- 기업경영

대부분의 기술에 대해 학생들은 본인이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다만 지휘 및 의사소통 항목에 대해서는 4.36점으로 평균 정도의 응답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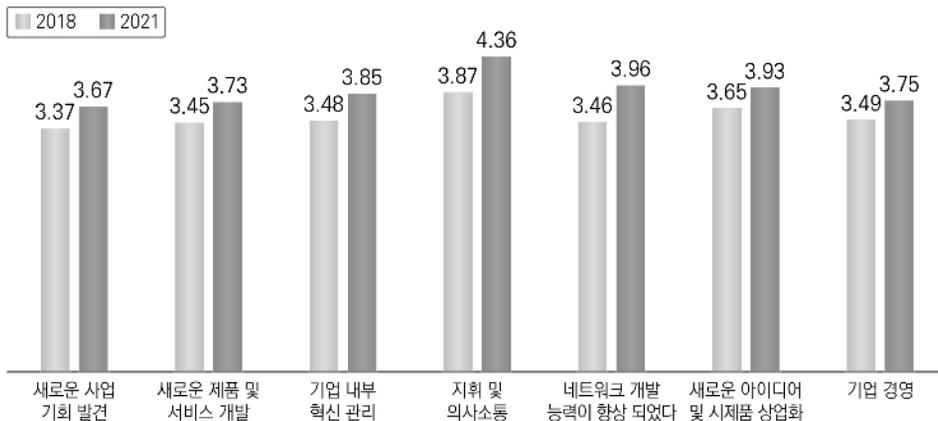
국제 데이터는 모든 항목에서 우리나라 학생들보다 높은 자아효능감을 보인다. 국내 대학생 및 국외 대학생 모두 지휘 및 의사소통에 가장 강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표 22〉 기업가적 자아효능감

구분	한국			전체국가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새로운 사업 기회 발견	893	3.67	1.434	184,504	4.28	1.651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887	3.73	1.442	183,030	4.25	1.667
기업 내부 혁신 관리	884	3.85	1.460	182,789	4.42	1.716
지휘 및 의사소통	885	4.36	1.516	182,710	5.01	1.665
네트워크 개발능력이 향상되었다	883	3.96	1.425	182,733	4.51	1.690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시제품 상업화	883	3.93	1.437	182,605	4.43	1.729
기업 경영	883	3.75	1.506	182,331	4.54	1.767

2018년도와 비교하면 자아효능감 역시 모든 문항의 점수가 2021년도에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들은 특히 지휘 및 의사소통의 항목과 네트워크 개발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6〉 기업가적 자아효능감 비교(2018-2021)



통제 위치는 다음의 문항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 나는 나의 개인적 관심사와 욕구에 충실한 편이다.
- 나는 수립한 계획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만든다.
- 나는 나의 삶에서 일어난 거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결정권을 갖고 있다.

통제 위치는 기업가정신에 대한 일반적 생각을 조사한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 군을 보였다. “나는 나의 개인적 관심사와 욕구에 충실한 편이다”와 “나는 나의 삶에서 일어난 거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문항은 각각 4.92점으로 조사되었으며, 계획 실천에 대한 항목은 4.66점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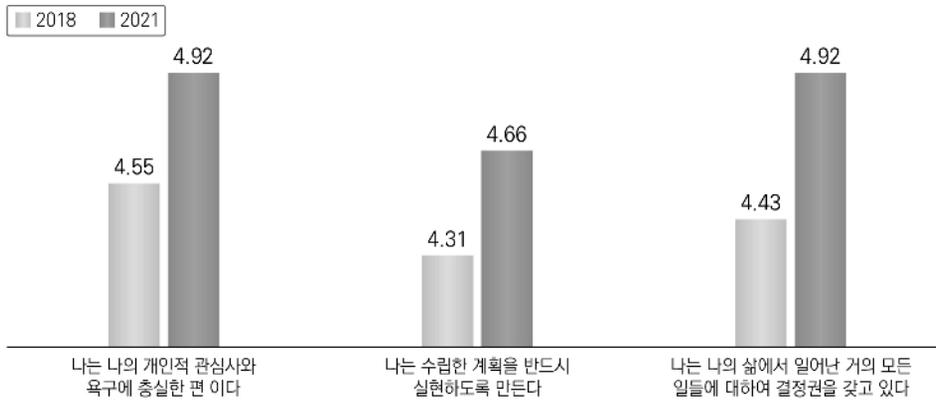
국제 데이터와 비교하면 개인적 관심사 및 욕구, 계획 실천 관련 문항은 국제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삶에 대한 결정권에 대한 문항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더 주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통제 위치

구분	한국			전체국가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빈도	평균	표준 편차
나는 나의 개인적 관심사와 욕구에 충실한 편이다	892	4.92	1.353	184,707	5.43	1.350
나는 수립한 계획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만든다	889	4.66	1.309	183,431	5.35	1.359
나는 나의 삶에서 일어난 거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결정권을 갖고 있다	886	4.92	1.325	183,338	4.54	1.727

통제 위치 또한 2018년도의 결과와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의 평균 점수가 상승하였다.

〈그림 7〉 통제 위치 비교(2018-2021)



4.3. 가정 요인

대학생들이 가족 중 창업자가 있는지, 가족들의 창업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를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27.2%는 부모님 중 한 분 혹은 두 분이 모두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부모님이 기업의 오너이거나 혹은 대주주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11.5%로 조사되었다.

〈표 24〉 부모님 사업 운영 여부

구분		빈도	비율(%)
귀하의 부모님은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요	888	72.8
	예(아버지만 해당)	178	14.6
	예(어머니만 해당)	53	4.3
	예(두 분 모두 해당)	101	8.3
	합계	1,220	100.0
귀하의 부모님은 기업 오너 혹은 대주주입니까?	아니요	1,080	88.5
	예(아버지만 해당)	87	7.1
	예(어머니만 해당)	17	1.4
	예(두 분 모두 해당)	36	3.0
	합계	1,220	100.0

본인이 창업한다고 할 때 주위의 반응을 예상한 문항에서는 크게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은 반응을 예상하는 응답이 많았다. 매우 부정적을 1점, 매우 긍정적을 7점으로 한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가족의 경우 4.0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친구는 4.6점으로 응답 그룹 중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5〉 창업 시 주위의 반응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귀하의 가족(친지)	1,216	4.03	1.642
귀하의 친구	1,207	4.60	1.554
귀하의 학교 동기 및 선후배	1,209	4.44	1.482

* 귀하께서 창업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의 예상된 반응은 어떻습니까? (1=매우 부정적, 7=매우 긍정적)

05

예비 창업가

현재 창업을 고려하거나 창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 이미 창업한 응답자를 제외한 269명을 대상으로 창업 계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5.1. 일반 정보

예비 창업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51.7%, 여성이 48.3%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전체의 45.1%가 남성이며, 54.7%가 여성인 것과 비교하면 여성보다 남성이 창업을 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6〉 예비 창업자 성별 분포

구분	빈도	비율(%)
남성	139	51.7
여성	130	48.3
합계	269	100.0

〈표 27〉은 예비 창업자의 전공 분포를 보여준다. 공학이 26.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의료/생명이 12.3%, 경영이 10.8%, 예술/인문이 9.3%로 나타났다.

〈표 27〉 예비 창업자 전공 분포

전공	빈도	비율(%)
예술/인문(문화, 역사, 언어, 철학, 종교 등)	25	9.3
경영	29	10.8
컴퓨터/IT	15	5.6
경제	9	3.3
공학(건축 포함)	71	26.4
의료/생명	33	12.3
법학	1	0.4
수학	1	0.4
자연과학	14	5.2
예술과학(미술, 디자인, 연극, 음악 등)	20	7.4
사회과학(심리학, 정치학, 교육학 등)	21	7.8
기타	30	11.2
합계	269	100.0

현재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의 57.5%는 실제 창업 시기에 대해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졸업 후 2년 내 창업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20.9%이며, 재학 중에 창업을 완료하겠다고 응답한 학생은 15.3%로 나타났다.

〈표 28〉 창업 완료 예정 시기

구분	빈도	비율(%)
학업 중	41	15.3
졸업 직후	17	6.3
졸업 후 2년 내	56	20.9
아직 잘 모르겠음	154	57.5
합계	268	100.0

* 언제 창업을 완료할 계획입니까? (언제 실제로 회사를 시작할 것입니까?)

계획 중인 창업에 대하여 49.6%의 학생들은 졸업 후에 본인의 주요 직장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12.7%의 학생은 졸업 후 다른 직장 또는 진로를 예측하였다.

〈표 29〉 졸업 후 주요 직장으로서의 창업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아니요	34	12.7
예	133	49.6
잘 모르겠음	101	37.7
합계	268	100.0

* 창업할 회사는 졸업 후 귀하에게 주요 직장이 될 것입니까?

예비 창업자 중 88.4%는 이전 창업 경험이 없으며, 11.6%는 이전 창업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0〉 예비 창업자 이전 창업 경험

구분	빈도	비율(%)
아니요	237	88.4
예	31	11.6
합계	268	100.0

* 귀하는 이전에 다른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예비 창업자의 사업 아이디어는 56.7%는 대학과 무관한 곳에서 발굴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학교 과정 중 사업 아이디어를 얻은 학생들의 비중은 31.3%이다.

〈표 31〉 사업 아이디어 출처

구분	빈도	비율(%)
대학교 과정 중	84	31.3
대학과 관련된 다른 형태	32	11.9
대학과 상관 없음	152	56.7
합계	268	100.0

* 창업 사업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비 창업자들의 27.3%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창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2〉 코로나19로 인한 창업 계획 영향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아니요	194	72.7
예	73	27.3
합계	267	100.0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창업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예비 창업가들은 사업의 최대 소유권 및 지배권을 유지하는 것(21.6%)보다 사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78.4%)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사업 운영 시 주안점

구분	빈도	비율(%)
가능한 한 사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	207	78.4
사업의 최대 소유권 및 지배권을 유지하는 것	57	21.6
합계	264	100.0

* 사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과 사업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 중, 귀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 중인 사업의 분야는 광고/디자인/마케팅이 1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ITC(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포함)와 제조업이 10.4%로 조사되었다. 그 외 건강과 사회적 네트워크, 교육 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준비 중인 사업 분야

구분	빈도	비율(%)
광고/디자인/마케팅	41	15.2
건축 및 공학	18	6.7
건설 공사	3	1.1
컨설팅(인적자원, 법률, 경영관리, 세금)	9	3.3
교육 훈련	18	6.7
금융 서비스(은행, 보험, 투자, 부동산 등)	6	2.2
건강과 사회적 네트워크	20	7.4
ITC(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포함)	28	10.4
제조업	28	10.4
관광/레저	8	3.0
무역(도소매)	18	6.7
다른 서비스(예 : 운송)	12	4.5
기타	60	22.3
합계	269	100.0

5.2. 창업을 위한 활동

예비 창업자들은 창업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경쟁자에 대한 정보 수집(33.5%), 잠재고객과 제품 및 비즈니스 아이디어 논의(26.0%), 사업계획서 작성(25.7%), 제품/서비스 개발(16.7%)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부분 시장조사 및 아이디어 발전 등 초기 단계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아직 창업 계획만 있고 창업을 위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초기 창업가들도 43.5%의 비율로 조사되었다.

〈표 35〉 창업을 위해 하고 있는 활동

구분	빈도	비율(%)
잠재고객과 제품 및 비즈니스 아이디어 논의	70	26.0
시장 및 경쟁자에 대한 정보 수집	90	33.5
사업계획서 작성	69	25.7
제품/서비스 개발	45	16.7
마케팅 및 홍보활동	26	9.7
사업에 필요한 재료, 장비, 설비 구매	23	8.6
외부 자금 조달	6	2.2
특허, 저작권 및 상표 출원	9	3.3
사업 등록	7	2.6
제품/서비스 판매	13	4.8
아무것도 하지 않음	117	43.5

* 창업을 위해 이미 시작한 활동은 무엇입니까?(복수 응답 가능)

5.3. 창업 세부 정보

예비 창업가들의 47.2%는 단독 창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독 창업을 선택한 이유로는 공동 창업자 없이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응답이 41.6%로 가장 높았다.

〈표 36〉 단독/공동 창업 의향

구분	빈도	비율(%)
단독 창업	126	47.2
1명의 공동 창업자와 함께	58	21.7
2명의 공동 창업자와 함께	50	18.7
3명 이상의 공동 창업자와 함께	33	12.4
합계	267	100.0

〈표 37〉 단독 창업 이유

구분	빈도	비율(%)
자영업이므로 공동 창업자가 필요하지 않다	28	22.4
공동 창업자 없이,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	52	41.6
공동 창업자를 찾아보았지만 적합한 사람이 없었다	18	14.4
공동 창업자를 찾아보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	9	7.2
해당 없음	18	14.4
합계	125	100.0

공동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 파트너는 46.1%가 여성이며, 12.7%는 친척, 동료 학생이 44.7%로 조사되었다.

〈표 38〉 예비 공동 창업자 중 여성/친척/동료 학생의 수

구분	여성		친척		동료 학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명	76	53.9	123	87.2	78	55.3
1명	41	29.1	13	9.2	28	19.9
2명	14	9.9	4	2.8	24	17.0
3명	1	0.7	1	0.7	4	2.8
4명 이상	9	6.4	-	-	7	5.0
합계	141	100.0	141	100.0	141	100.0

창업할 회사에서 본인의 지분율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0.8%가 지분율 50~100%라고 응답하였으며, 28.2%의 응답자가 지분율 50%, 21.1%의 응답자가 지분율 0~49%라고 응답하였다.

〈표 39〉 창업할 회사에서 본인의 지분율

구분	빈도	비율(%)
0-49% (minority owner)	56	21.1
50%	75	28.2
51-100% (majority owner)	135	50.8
합계	266	100.0

5.4. 기업가적 지향성

예비 창업가들의 기업가적 지향성을 〈표 40〉의 10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모든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1점, 매우 동의함을 7점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예비 창업가들은 비교적 높은 위험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혁신성과 선제적 태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0〉 예비 창업자의 기업가적 지향성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나는 미지의 세계로 과감히 뛰어드는 것을 좋아한다	267	5.09	1.509
나는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	266	5.40	1.406
나는 위험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265	4.75	1.508
나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꼭 위험하지 않은 새롭고 특이한 활동을 시도한다	267	5.07	1.343
나는 일반적으로 이전에 창업에 시도되었던 접근법 보다는 독특한 접근법을 선호한다	266	4.73	1.401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보다 나만의 독특한 방법을 시도하는 것을 선호한다	266	5.17	1.362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보다 나만의 실험과 독창적 접근법을 선호한다	266	5.11	1.278
나는 보통 미래의 문제나 필요, 또는 변화를 예상하고 행동한다	267	5.08	1.334
나는 프로젝트를 미리 계획하는 경향이 있다	267	5.04	1.403
나는 다른 사람이 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 보다 “단계적/점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267	5.22	1.392

06

창업자

이미 창업을 하여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53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6.1. 일반 정보

창업자의 성별 분포는 <표 41>과 같다. 남성이 전체의 45.3%, 여성이 54.7%로 여성 창업자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1> 창업자 성별 분포

구분	빈도	비율(%)
남성	24	45.3
여성	29	54.7
합계	53	100.0

창업자들의 전공은 경영학이 26.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경제, 의료/생명, 사회과학이 각각 9.4%로 나타났다. 예비 창업자의 전공 분포와 비교하였을 때 컴퓨터/IT, 법학, 자연과학 전공은 없었다.

<표 42> 창업자 전공 분포

전공	빈도	비율(%)
예술/인문(문화, 역사, 언어, 철학, 종교 등)	2	3.8
경영	14	26.4
컴퓨터/IT	-	-

전공	빈도	비율(%)
경제	5	9.4
공학(건축 포함)	3	5.7
의료/생명	5	9.4
법학	-	-
수학	1	1.9
자연과학	-	-
예술과학(미술, 디자인, 연극, 음악 등)	3	5.7
사회과학(심리학, 정치학, 교육학 등)	5	9.4
기타	15	28.3
합계	53	100.0

학생 창업자들의 회사 설립연도는 22.9%가 2021년에 설립하였다고 응답하였다. 2019년에 설립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이 20.8%, 2020년에 설립하였다고 응답한 사람이 18.8%로 업력 2~3년의 회사 비중이 높았다. 반면 업력 3년 이상의 회사는 35.5%로 나타났다.

〈표 43〉 창업자 회사 설립연도

구분	빈도	비율(%)
2015년 이전	7	14.6
2016년	2	4.2
2017년	4	8.3
2018년	5	10.4
2019년	10	20.8
2020년	9	18.8
2021년	11	22.9
합계	48	100.0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1명이 35.4%로 가장 많았으며, 3명이 14.6%, 2명 혹은 0명이 12.5%, 5명이 8.3%로 나타났다. 6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16.8%로 조사되었다.

〈표 44〉 창업자 회사 정규직 근로자 수

구분	빈도	비율(%)
0명	6	12.5
1명	17	35.4
2명	6	12.5
3명	7	14.6
4명	-	-
5명	4	8.3
6명 이상	8	16.7
합계	48	100.0

소유 지분율은 응답자의 82%가 지분율 51~100%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0%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창업자는 14.0%, 50%의 지분율을 가진 창업자는 4.0%로 조사되었다.

〈표 45〉 창업자 소유 지분율

구분	빈도	비율(%)
0-49% (minority owner)	7	14.0
50%	2	4.0
51-100% (majority owner)	41	82.0
합계	50	100.0

응답자의 72.9%가 졸업 후에도 현재의 사업이 주요 직장이 되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4.6%의 응답자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12.5%로 조사되었다.

〈표 46〉 졸업 후 주요 직장으로서의 현재 사업

구분	빈도	비율(%)
아니요	7	14.6
예	35	72.9
잘 모르겠음	6	12.5
합계	48	100.0

* 귀사가 졸업 후에도 귀하에게 주요 직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체의 14%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창업하였다고 응답하였다. 86%의 응답자는 코로나19와 무관하게 창업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47〉 코로나19로 인한 창업 영향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아니요	43	86.0
예	7	14.0
합계	50	100.0

*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이전의 창업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46%의 학생이 이전에 창업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예비 창업자의 88.4%가 이전 창업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이전 창업 경험이 실제 창업에 더 쉽게 도전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8〉 창업자 이전 창업 경험

구분	빈도	비율(%)
아니요	27	54.0
예	23	46.0
합계	50	100.0

* 이전에 다른 사업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학생 창업가들의 주요 사업 분야는 제조업이 20%, 무역(도소매)업이 16%, 광고/디자인/마케팅 분야가 12%, 교육 훈련 분야가 10%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 49〉 창업자 사업 분야

구분	빈도	비율(%)
광고/디자인/마케팅	6	12.0
건축 및 공학	1	2.0
건설 공사	-	-
컨설팅(인적자원, 법률, 경영관리, 세금)	3	6.0
교육 훈련	5	10.0
금융 서비스(은행, 보험, 투자, 부동산 등)	1	2.0
건강과 사회적 네트워크	-	-
ITC(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포함)	4	8.0
제조업	10	20.0
관광/레저	-	-
무역(도소매)	8	16.0
다른 서비스(예 : 운송)	1	2.0
기타	11	22.0
합계	50	100.0

36%의 학생 창업가가 1명 이상의 공동소유자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공동소유자 중 66.7%는 1명 이상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공동소유자 중 친척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9%이며, 38.9%의 학생이 학우와 함께 창업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표 50〉 공동소유자 여부

구분	빈도	비율(%)
0명	32	64.0
1명	8	16.0
2명	5	10.0
3명	3	6.0
4명 이상	2	4.0
합계	50	100.0

* 귀하의 사업에는 몇 명의 공동소유자가 있습니까?

〈표 51〉 공동 창업자 중 여성/친척/동료 학생의 수

구분	여성		친척		동료 학생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0명	6	33.3	13	72.2	11	61.1
1명	7	38.9	3	16.7	5	27.8
2명	4	22.2	1	5.6	2	11.1
3명	-	-	-	-	-	-
4명 이상	1	5.6	1	5.6	-	-
합계	18	100.0	18	100.0	18	100.0

6.2. 창업 동기와 목표

학생 창업가들의 창업 동기부여와 목표에 대해 〈표 52〉, 〈표 53〉, 〈표 54〉의 18개의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모든 문항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1점, 매우 동의함을 7점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로 평가되었다.

창업 동기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하여’가 5.1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으로 내 경력을 쌓기 위해서’가 5.06점, ‘세상이 운영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가 4.61점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

문제(사회적 불평등, 환경보호 등)를 위해 창업하였다는 3.96점으로 나타났다.

〈표 52〉 창업자의 창업 동기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하여 창업하였다	50	5.12	1.662
사업으로 내 경력을 쌓기 위해서 창업하였다	49	5.06	1.842
나와 가장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친구, 동료, 클럽, 커뮤니티 등)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업하였다	50	4.18	2.027
나와 가장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친구, 동료, 클럽, 커뮤니티 등)의 활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창업하였다	49	4.55	1.894
개인사업에서 다루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사회적 불평등, 환경보호 등)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업하였다	49	3.96	2.179
세상이 운영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창업하였다	49	4.61	2.070

학생 창업가들은 사업을 운영할 때 〈표 53〉의 모든 항목이 거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특히 고객들에게 관점, 관심사,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12점). 그 뒤로 사업의 재정적 전망에 대한 분석이 5.61점으로 높게 나타나 부의 축적을 위하여 창업하였다고 한 응답과 일관성을 보여준다.

〈표 53〉 창업자의 사업 운영 철학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견고한 경영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50	5.10	1.644
사업의 재정적 전망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49	5.61	1.336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나와 가장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친구, 동료, 클럽, 커뮤니티 등)에게 유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50	5.16	1.376
고객들에게 관점, 관심사,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50	6.12	1.118
세계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50	5.26	1.575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 : 사회정의 추구, 환경 보호)	50	5.26	1.771

다음은 회사 운영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창업자들의 인식이다. 높은 회사 성과를 거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회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표 54〉 창업자의 사업 운영 목표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회사가 경쟁에서 무엇을 이루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50	5.74	1.139
사업 영역에서 강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다른 회사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50	5.46	1.388
나와 가장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친구, 동료, 클럽, 커뮤니티 등)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50	4.90	1.502
나와 가장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친구, 동료, 클럽, 커뮤니티 등)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50	4.86	1.807
회사가 사회 전반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50	5.64	1.241
개인회사가 사회적 문제(사회 정의, 환경보호 등)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50	4.96	1.551

6.3. 창업자 개인 특성

〈표 55〉는 창업가로서의 생활 경험을 나타낸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1점, 매우 동의함을 7점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가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본인이 현재 바쁘게 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에 대한 의무감이나, 휴식할 때의 죄책감도 비교적 높은 편으로 일에 대한 압박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55〉 창업가로서의 생활 경험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나는 시간에 쫓기고 바쁘다	49	5.16	1.688
나는 동료들이 그만두겠다고 말한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다	49	4.51	2.103
나는 항상 바쁘고 많은 일에 손을 대고 있다	49	5.51	1.474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취미생활, 여가활동을 하는 것보다 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50	5.06	1.812
나는 점심을 먹으며 전화 통화를 하고 메모를 쓰는 등 한번에 두세가지 일을 한다	50	4.80	1.979
내가 하는 일이 즐겁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50	4.62	1.947
가끔 내 안의 무언가가 나를 열심히 일하도록 만든다	50	6.12	0.982
즐겁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든다	50	4.88	1.757
나는 쉬고 있으면 죄책감을 느낀다	50	4.62	1.783
일하지 않을 때는 긴장을 풀기가 어렵다	50	4.36	1.871

〈표 56〉은 창업가로서의 행동에 관해 물어본 문항이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1점, 매우 동의함을 7점으로 한 리커트 척도로 평가되었다. 리더로서 조직을 운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나르시시즘, 전략성, 공감 능력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높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다던가, 도덕성에 무관심한 경향에 대해 묻는 문항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창업가로서 명성이나 사회적 지위의 추구, 존경의 획득에 대해서는 대부분 평균 이상의 점수로 조사되었다.

〈표 56〉 창업가로서의 행동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나는 내 방식대로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경향이 있다	50	4.20	1.818
나는 내 방식대로 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거나 거짓말을 했다	50	3.00	1.938
나는 내 방식대로 하기 위해 아침을 해 왔다	50	3.00	1.895
나는 내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50	3.28	2.041
나는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51	2.78	2.072
나는 내가 행동의 도덕성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49	2.73	1.901
나는 냉담하거나 무신경한 경향이 있다	50	3.24	1.954
나는 냉소적인 경향이 있다	50	3.48	1.887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50	4.82	1.535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경향이 있다	50	4.70	1.644
나는 명성이나 지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50	5.18	1.424
나는 다른 사람들의 특별한 호의나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50	4.62	1.602

6.4. 회사 성과

다음으로 운영 중인 사업의 성과에 대해 질문하였다. 매우 못함을 1점, 매우 잘함을 7점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사업성과에 대해 긍정적이기도 부정적이기도 않게 평가하였으나 고용 창출의 면에 있어서는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7〉 회사 성과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매출 성장	50	4.30	1.607
시장 점유율 증가	50	4.10	1.555
이익 증가	50	4.28	1.485
고용창출	50	3.44	1.929
혁신성	50	4.54	1.764

6.5. 가족의 지원

운영 중인 사업을 가족들이 얼마나 지지하는가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1점, 매우 동의함을 7점으로 하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질문하였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가족들의 관심 및 지원에 대해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 때문에 좌절 했을 때 가족의 이해에 대한 문항이 5.02점으로 비교적 높게 평가되어 사업 실패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나쁘지 않음을 보여준다.

〈표 58〉 창업자 가족의 지원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들이 걱정한다	50	4.80	1.969
사업 때문에 좌절했을 때 가족들은 이해하려고 한다	50	5.02	1.767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나의 사업에 관심이 많다	50	4.56	1.971
내 사업에 대해 이야기 할 때 가족들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다	50	3.40	2.03
가족들은 주로 대가 없이 나의 사업을 돕는다	50	4.66	2.096
필요한 경우 가족들이 나와 내 직원들을 대신할 수 있다	49	4.10	2.266
가족들은 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 유용한 피드백을 준다	50	4.46	2.052
가족들은 기대한 것 보다 내 사업에 더 많은 도움을 준다	50	4.34	2.026
가족들은 나의 사업을 자주 도와준다	50	4.12	2.135

07

가족 기업

7.1. 잠재적 사업 승계자

잠재적 사업 승계자에 대한 문항은 부모님 중 사업을 하는 분이 계시거나 기업 오너 혹은 대주주인 학생 중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학생들 319명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부모님 회사의 업력 분포는 <표 59>와 같다.

<표 59> 부모님 회사 업력 분포

구분	빈도	비율(%)
10년 이하 (2012년~2021년)	56	31.6
11년 이상~20년 이하 (2002년~2011년)	56	31.6
21년 이상 (~2001년)	65	36.7
합계	177	100.0

부모님 회사의 규모는 1~9인 규모가 6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10~49인 규모가 15.9%, 0인 규모는 8%로 조사되었으며, 평균적으로 약 32명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0〉 부모님 회사 규모

구분	빈도	비율(%)
0인	14	8.0
1~9인	123	69.9
10~49인	28	15.9
50~99인	3	1.7
100인 이상	8	4.5
합계	176	100.0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회사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75.7%로 나타났다.

〈표 61〉 부모님 회사 운영 주도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아니요	73	24.3
예	227	75.7
합계	300	100.0

62.5%의 응답자가 본인 가족이 회사의 51~10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생 개인이 가족 회사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은 5%로 조사되었다.

〈표 62〉 가족 회사 소유 지분율

구분	빈도	비율(%)
0-49% (minority owner)	70	26.0
50%	31	11.5
51-100% (majority owner)	168	62.5
합계	269	100.0

* 귀하의 가족이 보유한 회사 지분율은?

〈표 63〉 본인의 가족 회사 지분을 보유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아니요	286	95.0
예	15	5.0
합계	301	100.0

* 귀하는 개인적으로 회사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의 회사를 ‘가업’이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18.5%로 나타났으며, 27.5%의 학생이 부모님의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64〉 가업 인식을

구분	빈도	비율(%)
아니요	243	81.5
예	55	18.5
합계	298	100.0

* 귀하는 이 회사를 ‘가업’이라고 생각하나요?

〈표 65〉 가족 회사 근로 경험

구분	빈도	비율(%)
아니요	222	72.5
예	84	27.5
합계	306	100.0

* 이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나요?

〈표 66〉 형제 및 자매 수

구분	빈도	비율(%)
0명	27	8.7
1명	191	61.6
2명 이상	92	29.7
합계	310	100.0

부모님 회사의 사업 분야는 〈표 67〉과 같다.

〈표 67〉 부모님 회사 사업 분야

구분	빈도	비율(%)
광고/디자인/마케팅	15	5.1
건축 및 공학	18	6.2
건설 공사	30	10.3
컨설팅(인적자원, 법률, 경영관리, 세금)	3	1.0
교육 훈련	21	7.2
금융 서비스(은행, 보험, 투자, 부동산 등)	9	3.1
건강과 사회적 네트워크	8	2.7
ITC(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포함)	12	4.1
제조업	43	14.7
관광/레저	5	1.7
무역(도소매)	29	9.9
다른 서비스(예 : 운송)	31	10.6
기타	68	23.3
합계	292	100.0

부모님 사업의 승계에 대한 생각을 〈표 68〉의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다. 전혀 동의하지 않음을 1점, 매우 동의함을 7점으로 하여 측정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사업 승계에 대한 의식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8〉 부모님 회사 승계 인식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나는 부모님의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305	2.70	1.696
부모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305	2.31	1.574
나는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305	2.39	1.665
나는 향후 부모님 사업을 승계하기로 결심했다	305	2.22	1.575
나는 부모님 사업을 승계할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	304	2.29	1.669
나는 언젠가 부모님 사업을 이어갈 생각이 있다	304	2.45	1.696

부모님 회사에 대한 성과 평가는 매출 성장과 시장 점유율, 이익 증가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으나 고용 창출과 혁신성에 대해서는 다소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69〉 부모님 회사 성과 평가

구분	빈도	평균	표준편차
매출 성장	289	4.25	1.430
시장 점유율 증가	285	4.01	1.399
이익 증가	285	4.12	1.445
고용 창출	285	3.65	1.591
혁신성	283	3.71	1.481

*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 간 경쟁사 대비 부모님 회사의 성과 정도는? (1=매우 못함, 7=매우 잘함)

7.2. (창업자의 경우) 가족 사업과의 관계

한편 적어도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시거나 사업에 높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 이미 창업을 시작한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부모님

의 사업과 본인에 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조사하였다.

26.7%의 학생은 부모님의 사업과 같은 시장/산업에서 창업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부모님이 본인 사업에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33.3%였다. 또한 두 사업체 간에 사업거래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26.7%로 조사되었다.

〈표 70〉 부모님 회사-본인 회사 간 동종 산업 종사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아니요	11	73.3
예	4	26.7
합계	15	100.0

* 두 산업은 같은 시장/산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표 71〉 부모님의 학생 회사 지분 소유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아니요	10	66.7
예	5	33.3
합계	15	100.0

* 귀하의 부모님은 귀하의 사업에 지분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표 72〉 부모님 회사-본인 회사 간 사업거래 여부

구분	빈도	비율(%)
아니요	11	73.3
예	4	26.7
합계	15	100.0

* 두 사업체 사이에 관련 사업거래가 있습니까?

08

요약 및 결론

2021년 글로벌 대학생 기업가정신 조사는 전 세계 58개국에서 약 267,0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한국의 경우 27개 이상의 대학에서 1,220명의 학생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비중은 지난 2018년도 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연령은 다소 높아졌으며 학사과정 응답자의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다.

졸업 후 진로와 5년 후 진로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 취업은 4.8%에서 2.5%로, 중견기업 취업은 15.6%에서 10.8%로 낮아진 반면, 대기업 취업은 22.2%에서 24.9%, 공공기관 취업은 21.0%에서 23.8%로 높아진 것을 보면, 직업에 대한 안정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을 진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7.2%에서 11.7%로 높아져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인식이 안정성과 도전적 측면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창업을 고려하거나 창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25.4%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창업을 실행한 학생 창업가의 비중은 4.3%로 조사되었다. 전체 국가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직업 선택 시 위험 회피성이 한국 학생들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에서 우리나라가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과 대비할 때, 대학생이 실패를 더 두려워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나 대학 차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다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창업을 완전하게 진로로 보기보다는 경험을 먼저 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으며, 대학 차원에서 이러한 경험의 기회를 확대하여 학생들이 진로로서 창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직업 선택 시 위험 감수성향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전체 국가에 비하여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대학의 기업가정신 관련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나타났다. 창업가가 되고자 할 때의 대학의 환경이나 창업 활동 권장 정도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기업가정신 관련 수업/프로그램 제공 및 수업 효과는 2018년도와 대비하여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창업 의지 또한 높아졌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전체국가와 비교할 때, 대학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자극하거나(3.85:4.30), 창업가가 되는 것에 좋은 환경이 되어 주거나(3.82:4.29), 대학이 학생의 창업활동을 권장한다(4.23:4.48)는 항목 모두 우리나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대학이 창업활동을 권장하는 것에 비해 대학이 창업에 좋은 자극과 환경이 되는 것에서는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대학 내에서 창업에 대한 인식과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가와 비교할 때, 기업가정신 강의 수강여부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관련 프로그램 참여도도 매우 높게 나타나 투입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창업가 관련 이해, 사업 개시 활동에 대한 이해, 실무경영능력, 네트워크 개발 능력 등 프로그램의 효과는 전체국가 대비 낮은 편이라는 점과, 대학 선택의 이유에 재학 중인 대학의 선택이 기업가정신에 관한 명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산출 측면에서 볼 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가적 의도 역시 전체국가에 비해 모든 항목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차이도 높게 나타나는 편이고, 기업가적 태도나 창업에 대한 인식, 기업가적 자아효능감 역시 전체국가 대비 낮게 나타났다. 2018년에 비해서는 상승했으나, 전체국가 대비해서는 낮은 편이므로, 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예비 창업자의 42.5%는 졸업 후 2년 이내에 창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창업 완료 시기는 학업 중(15.3%), 졸업 직후(6.3%), 졸업 후 2년 내(20.9%)로 학생창업과 졸업 후 준비기간을 두고 창업할 경우에 대응하여 구분된 창업지원이 필요하며, 졸업생에 대한 창업지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 아이디어의 출처가 대학과 상관없는 비율이 56.7%나 되는 것을 감안하여 대학

외에서의 활동과 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여주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비 창업자의 27.3%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창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비 창업자들의 창업을 위한 활동은 잠재고객 발굴 및 아이디어 논의, 시장 정보 수집, 사업계획서 작성, 제품/서비스 개발 등 창업 초기 활동에 주로 집중하고 있었으며 자금 조달 및 특허 출원 등의 활동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창업자들은 비교적 높은 위험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혁신성과 선제적 태도 또한 두드러진다. 다만, 예비창업자의 기업가적 지향성에서 위험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과 이전에 시도되었던 창업 접근법과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응답에 비해서 다소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생 창업자들의 약 65%가량이 업력 2~3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학생 창업자의 약 절반가량은 이전 창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예비 창업자의 88.4%가 창업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할 때, 학생창업에서도 연쇄적 창업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창업 관련 경험이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 동기는 금전적 동기가 가장 높았으며, 사업 경력 축적 및 세상 변화에 있어 주도적 역할 수행의 동기도 높았다. 다만, 기업가정신이 내 주변의 문제나 사회적 문제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학생 창업자의 창업동기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것은 창업에 대한 인식을 자칫 금전과 경제적인 차원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을 나타낼 수도 있어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변화와 문화조성 역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창업가로서의 생활 경험에 대해서는 업무량이 많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일과 개인생활을 어느 정도 분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창업가로서 명성과 지위를 중요시하고, 목적을 위해 도덕적이거나 인간적인 면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낮게 나타나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약탈적 사업가로서의 모습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회사 운영 목표로는 높은 회사 성과와

함께 회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높은 인식을 보인다.

창업가 가족의 지원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본인의 가족 회사 지분을 보유 여부나 가업 인식률, 부모님 회사-본인 회사 간 사업거래 여부 등은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 부모님이 사업을 하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부모님의 사업 승계에 대해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2018년 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학생들의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 수강 여부나 프로그램 참가 여부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를 필수과목으로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13.1%에서 21.5%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업 효과 체감도 2018년도와 비교하여 다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현재 창업 관련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전년 대비 창업 의지가 올라갔다는 점이다. 창업 의지를 측정한 기업가적 의도, 기업가적 태도, 자아효능감, 통제 위치의 항목이 소폭이지만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창업 활동에서의 기업가정신뿐만이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결과이다.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평가한 한국의 대학 기업가정신 교육 여건(Entrepreneurial education at post-school stage)은 2019년 4.19점에서 2020년 4.6점으로 크게 개선되었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함께 고려하였을 때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각 대학의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후 진로를 창업이라고 여기는 학생의 비율이 2018년 15.38%에서 2021년에 11.7%로 다소 낮아졌는데, 이는 2021년 응답자 중 석박사 과정 학생의 비중이 2018년과 비교하여 높아진 결과(2018년 2.9% → 2021년 4.3%)로 짐작된다.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나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Global Startup Ecosystem Report) 등에서 우리나라의 생태계 순위는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대의 흐름에 의해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학은 혁신 역량과 인재배출 등 기업가정신의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행하고 있다. 향후 우수한 창업인재와 창업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대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창업자의 역량 제고와 함께 대학 자체가 기업가적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비 창업자나 창업자 배출을 위한 프로그램 외에도 잠재적 창업자가 진로 관점에서 창업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는 등 대학 차원의 문화조성과 이에 관련한 성과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PART 02 •

2021 GUESSS 한국 보고서

심층분석

| 2021 글로벌 대학생 기업가정신 조사(GUESSS) |

01

서론

1.1. 추진 배경

GUESSS는 ‘Global University Entrepreneurial Spirit Students’ Survey’의 약자로 대학생들의 창업 의도와 활동을 조사한 국제 연구 프로젝트이다. 2021년 조사연구에서는 기존 기초연구 이외에도 심층분석 연구를 추가로 수행하여 유의미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1.2. 심층분석을 위한 연구 방법론

기존에 분석 결과는 주로 빈도를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수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다음의 심층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 개별 변수(설문항목)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여 수집된 자료에서 추출된 요인이 각 설문변수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주요 변수의 수를 줄이기 위한 요인부하량 행렬을 확인하고 주요 설문변수들을 대표할 수 있는 요인변수를 도출한다.
- 도출된 대표 요인변수들에 대해 하나의 단일한 값을 갖도록 평균 수치화하여 합산척도(Summated Scale)를 도출한다.
- 요인변수들의 합산척도를 기준으로 기존에 제시된 통계학적 특성들인 “인구통계학적 특성”, “경력목표 특성”, “(예비)초기창업가 특성”과의 교차분석을 수행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

1.3. 심층분석 대상 변수 및 분석 요인 선정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인 요인분석이 가능한 설문항목을 기준으로 심층분석이 가능하며, 응답값이 없는 항목(null 값)과 척도항목이 아닌 설문을 제외하고 다음의 변수들을 기준으로 대표 요인분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분석인 점을 고려하여 “9) 부모님 사업”과 “10) 부모님 사업과의 연관성”은 제외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설문분류에 따른 설문코드와 요인분석 여부

분류	설문코드	요인분석
1. 학업관련	Q1.1~Q1.3	X
2. 경력목표	Q.2.1~Q2.4	X
3. 대학 관련	Q3.1~Q.3.2	O
	Q3.3	X
	Q3.4~Q3.5	O
4.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	Q4.1~Q4.3	O
5. 가정환경	Q5.1~Q5.3	X
6. 응답자 정보	Q6.1~Q6.5	X
7. 창업을 한 경우 (능동적 창업가)	Q7.1~Q7.8	X
	Q7.9~Q7.15	O
8. 창업을 계획한 경우 (초기 창업가)	Q8.1~Q8.12	X
	Q8.13	O

GUESSS 설문결과는 설문자의 특성(창업의사 여부/Q2.2~Q2.3)에 따라 설문응답 항목의 차이가 있으며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2〉 창업여부에 따른 설문응답 결과

분류	창업의사 없음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1. 학업관련	○	○	○
2. 경력목표	○	○	○
3. 대학 관련	○	○	○
4.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	○	X	X
5. 가정환경	○	○	○
6. 응답자 정보	○	○	○
7. 창업을 한 경우 (능동적 창업가)	X	X	○
8. 창업을 계획한 경우 (초기 창업가)	X	○	X

요인분석 대상인 주요 설문변수를 대상으로 기존 GUESSSS에서 명시된 관련 문헌 연구를 참고하여 요인후보를 명시하였다.

“대학 관련” 문항에서는 총 5개의 항목으로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복수응답 질문을 제외한 4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Q3.1과 Q3.2는 대학환경과 프로그램 학습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8개의 설문변수를 대상으로 요인 분석하여 공통성(Communality)을 도출하여 각 변수가 얼마나 잘 설명되는지를 분석하고, 변수의 수를 줄여 대표요인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Q3.4과 Q3.5는 대학의 지속가능한 지원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개의 변수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수행한다. Q3.3은 복수응답인 항목으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 3〉 ‘대학 관련’ 설문 요인변수

분류	설문코드	설문요인	변수	기존문헌연구 요인 후보
3. 대학 관련	Q3.1	대학 환경에 관한 질문	3개	University Environment ¹⁾
	Q3.2	학업/수업에 관한 질문	5개	Program Learning ²⁾
	Q3.4	대학의 지속가능한 지원에 관한 질문(a)	3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³⁾
	Q3.5	대학의 지속가능한 지원에 관한 질문(b)	3개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 문항에서는 4개 설문요인을 대상으로 총 21개 질문변수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4〉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 설문 요인변수

분류	설문코드	설문요인	변수	기존문헌연구 요인 후보
4.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	Q4.1a	기업가정신에 관한 질문(a)	6개	General Thoughts ⁴⁾ (Intentions)
	Q4.1b	기업가정신에 관한 질문(b)	5개	General Thoughts (Attitude)
	Q4.2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에 관한 질문(a)	7개	Skills ⁵⁾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Q4.3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능력에 대한 추가 질문(b)	3개	Skills ⁶⁾ (Locus of Control)

1) Franke & Lüthje, 2004; Geissler, 2013

2) Souitaris et al., 2007

3)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능동적 창업가” 문항에서는 명목척도가 아닌 2개 설문요인을 제외하고 11개 설문요인을 대상으로 총 54개 질문변수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5〉 ‘능동적 창업가’ 설문 요인변수

분류	설문코드	설문요인	변수	기존문헌연구 요인 후보
7. 능동적 창업가	Q7.9a	창업에 대하여 다음 항목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관한 질문(a)	6개	Founder Identity ⁷⁾ (Motivations)
	Q7.9b	창업에 대하여 다음 항목들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관한 질문(b)	6개	Founder Identity (Goals)
	Q7.9c	회사 운영에 대하여 다음 항목들에 관한 질문	6개	Founder Identity (Managing Firm)
	Q7.10a	창업가로서 경험과 관련된 다음 항목들에 관한 질문 (a)	5개	Experiences ⁸⁾ (Work Excessively)
	Q7.10b	창업가로서 경험과 관련된 다음 항목들에 관한 질문 (b)	5개	Experiences (Work Compulsively)
	Q7.11a	창업가로서 행동과 관련된 다음의 항목들에 관한 질문 (a)	4개	Behavior ⁹⁾ (Macchiavellism)
	Q7.11b	창업가로서 행동과 관련된 다음의 항목들에 관한 질문 (b)	4개	Behavior (Psychopathy)

4) Linan & Chen, 2009

5) Chen et al., 1998, Zhao et al., 2005

6) Levenson, 1973

7) Sieger et al., 2016

8) Schaufeli et al., 2009

9) Jonason & Webster, 2010

10) Eddleston et al., 2008; Dess & Robertson, 1984

11) Eddleston & Powell, 2012

분류	설문코드	설문요인	변수	기존문헌연구 요인 후보
	Q7.11c	창업가로서 행동과 관련된 다음의 항목들에 관한 질문 (c)	4개	Behavior (Narcussism)
	Q7.12	경쟁사 대비 귀사의 성과 정도에 관한 질문	5개	Firm Performance ¹⁰⁾
	Q7.13a	가족의 지원과 관련된 다음의 항목들에 관한 질문(a)	4개	Family Support ¹¹⁾ (Emotional)
	Q7.13b	가족의 지원과 관련된 다음의 항목들에 관한 질문(b)	5개	Family Support (Instrumental)

“(예비)초기창업가“ 문항에서는 3개 설문요인을 대상으로 총 10개 질문변수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6〉 ‘(예비) 초기창업가’ 설문 요인변수

분류	설문코드	설문요인	변수	기존문헌연구 요인 후보
8. (예비) 초기 창업가 ¹²⁾	Q8.13a	창업에 대한 접근방법 (a)	3개	Risk-Taking
	Q8.13b	창업에 대한 접근방법 (b)	4개	Innovativeness
	Q8.13c	창업에 대한 접근방법 (c)	3개	Proactiveness

척도항목이 아닌 단순응답/복수응답 변수의 경우 요인분석 결과와 함께 상관관계 분석시 지표로 활용된다.

12) Bolton & Lane, 2012

0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1. ‘대학(University) 항목’ 관련 요인분석 결과

총 4개 설문요인의 변수 14개를 대상으로 KMO and Bartlett’s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표본적절성은 0.5보다 크고 유의확률은 0.05(95% 신뢰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해당 변수들의 요인분석을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7〉 ‘대학(University)’ 요인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표본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1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3645.963
	자유도	91
	유의확률	.000

다음으로 공통성(Communality) 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이 각 변수를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보통 최대 요인 적재량의 절대치의 기준은 0.3에서 0.5로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0.4 이상인 변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14개의 변수가 기준점인 0.4 보다 크므로 모든 변수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표 8〉 ‘대학(University)’ 요인 공통성(Community) 분석 결과

	초기	추출		초기	추출
Q3.1_1	1.000	.563	Q3.2_5	1.000	.668
Q3.1_2	1.000	.655	Q3.4_1	1.000	.736
Q3.1_3	1.000	.507	Q3.4_2	1.000	.791
Q3.2_1	1.000	.773	Q3.4_3	1.000	.810
Q3.2_2	1.000	.818	Q3.5_1	1.000	.706
Q3.2_3	1.000	.780	Q3.5_2	1.000	.670
Q3.2_4	1.000	.690	Q3.5_3	1.000	.628

요인분석의 목적은 변수의 수를 줄이는 데 있으며 변수들의 공분산 및 고유값을 분석해본 결과, 총 2개의 대표요인으로 전체 자료의 69.9%를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9〉 ‘대학(University)’ 요인의 설명된 총분산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량			회전 제곱합 적재량		
	전체	% 분산	누적 %	전체	% 분산	누적 %	전체	% 분산	누적 %
1	7.847	56.050	56.050	7.847	56.050	56.050	5.588	39.917	39.917
2	1.948	13.912	69.962	1.948	13.912	69.962	4.206	30.045	69.962
3	.800	5.717	75.679						
4	.700	4.998	80.678						
5	.499	3.565	84.243						
6	.461	3.289	87.532						
7	.329	2.352	89.884						
8	.277	1.980	91.864						
9	.244	1.742	93.605						
10	.238	1.698	95.303						
11	.206	1.469	96.772						
12	.195	1.393	98.165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량			회전 제곱합 적재량		
	전체	% 분산	누적 %	전체	% 분산	누적 %	전체	% 분산	누적 %
13	.145	1.034	99.199						
14	.112	.801	100.000						

요인추출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활용하였다. 요인회전 방법으로 가장 대중적인 기준인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Varimax)를 사용하여 2번 반복 계산한 결과 요인회전이 수렴되었다. 성분행렬(Component Matrix)을 통해 2개 요인으로 변수들의 그룹화를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존 문헌연구에서 정의한 Q.3.1~Q.3.2의 변수가 첫 번째의 요인으로 Q.3.4~Q.3.5의 변수가 두 번째 요인으로 묶이게 되었으며, 각각 ‘대학 환경 및 교육효과’ 및 ‘대학의 지속가능한 목표’ 등으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표 10〉 ‘대학(University)’ 요인 회전된 성분행렬 분석 결과

	요인1	요인2
Q3.2_2	.877	.219
Q3.2_3	.863	.190
Q3.2_1	.852	.217
Q3.2_4	.793	.248
Q3.2_5	.764	.290
Q3.1_2	.755	.290
Q3.1_1	.718	.217
Q3.1_3	.640	.311
Q3.4_3	.196	.878
Q3.4_2	.150	.877
Q3.4_1	.171	.841
Q3.5_2	.370	.731
Q3.5_1	.457	.705
Q3.5_3	.452	.651

〈표 11〉 ‘대학(University)’ 관련 새로운 요인변수 정의

분류	새로운 요인변수 정의	세부변수
3. 대학 관련	대학 환경 및 교육효과	Q3.1_1 / Q3.1_2 / Q3.1_3 Q3.2_1 / Q3.2_2 / Q3.2_3 Q3.2_4 / Q3.2_5
	대학의 지속가능한 목표	Q3.4_1 / Q3.4_2 / Q3.4_3 Q3.5_1 / Q3.5_2 / Q3.5_3

요인분석을 통해서 변수의 유의성과 공통성을 확인하였으며, 2개의 요인의 변수들을 합산척도(Summated Scale) 방법을 활용하여 여러 개의 개별변수를 하나의 단일수치화 할 수 있었다. 대학(University) 항목에서는 8개의 변수(Q3.1_1~Q3.2_5)를 평균 계산하여 새로운 요인인 ‘대학 환경 및 교육효과’ 척도를 도출하며, 6개의 변수(Q3.4_1~Q3.5_3)를 평균 계산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목표’ 요인 척도를 도출하였다.

2.2.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Entrepreneurship)’ 관련 요인분석 결과

총 4개 설문요인의 변수 21개를 대상으로 KMO and Bartlett’s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표본적절성은 0.5보다 크고 유의확률은 0.05(95% 신뢰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해당 변수들의 요인분석을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12〉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Entrepreneurship)’ 요인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표본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척도.		.93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3947.643
	자유도	210
	유의확률	.000

다음으로 공통성(Communality) 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이 각 변수를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21개의 변수가 기준점인 0.4 보다 크므로 모든 변수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3〉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Entrepreneurship)’ 요인 공통성(Communality) 분석결과

	초기	추출		초기	추출
Q4.1a_1	1	0.631	Q4.2_1	1	0.696
Q4.1a_2	1	0.852	Q4.2_2	1	0.722
Q4.1a_3	1	0.721	Q4.2_3	1	0.739
Q4.1a_4	1	0.89	Q4.2_4	1	0.582
Q4.1a_5	1	0.88	Q4.2_5	1	0.71
Q4.1a_6	1	0.863	Q4.2_6	1	0.712
Q4.1b_1	1	0.583	Q4.2_7	1	0.712
Q4.1b_2	1	0.724	Q4.3_1	1	0.653
Q4.1b_3	1	0.636	Q4.3_2	1	0.684
Q4.1b_4	1	0.697	Q4.3_3	1	0.723
Q4.1b_5	1	0.672			

요인분석의 목적은 변수의 수를 줄이는 데 있으며 변수들의 공분산 및 고유값을 분석해본 결과, 총 4개의 대표요인으로 전체 자료의 71.8%를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4〉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Entrepreneurship)’ 요인의 설명된 총분산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량			회전 제곱합 적재량		
	전체	% 분산	누적 %	전체	% 분산	누적 %	전체	% 분산	누적 %
1	9.407	44.797	44.797	9.407	44.797	44.797	5.373	25.587	25.587
2	2.888	13.753	58.550	2.888	13.753	58.550	4.785	22.784	48.372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량			회전 제곱합 적재량		
	전체	% 분산	누적 %	전체	% 분산	누적 %	전체	% 분산	누적 %
3	1.692	8.055	66.605	1.692	8.055	66.605	2.812	13.392	61.763
4	1.097	5.226	71.831	1.097	5.226	71.831	2.114	10.067	71.831
5	.682	3.248	75.078						
6	.605	2.883	77.961						
7	.541	2.577	80.538						
8	.499	2.376	82.914						
9	.474	2.255	85.168						
10	.426	2.031	87.199						
11	.392	1.868	89.067						
12	.360	1.712	90.780						
13	.348	1.657	92.437						
14	.299	1.422	93.859						
15	.278	1.326	95.185						
16	.244	1.162	96.347						
17	.219	1.044	97.390						
18	.192	.913	98.303						
19	.179	.853	99.156						
20	.101	.482	99.638						
21	.076	.362	100.000						

요인추출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활용하였다. 요인회전 방법으로 가장 대중적인 기준인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Varimax)를 사용하여 6번 반복 계산한 결과 요인회전이 수렴되었다. 성분행렬(Component Matrix)을 통해 4개 요인으로 변수들의 그룹화를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Q4.1b_5' 항목만 변경된 것을 제외하면 기존 문헌연구에서 정의한 4개 요인 후보와 동일하게 정의할 수 있었다.

〈표 15〉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Entrepreneurship)' 요인 회전된 성분행렬(베리맥스)

분석 결과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Q4.1a_4	.909	.194	.160	.029
Q4.1a_5	.899	.202	.170	.044
Q4.1a_6	.895	.191	.157	.031
Q4.1a_2	.887	.180	.178	.025
Q4.1a_3	.758	.218	.295	.113
Q4.1a_1	.675	.292	.294	.060
Q4.1b_5	.609	.230	.494	-.068
Q4.2_3	.181	.812	.167	.138
Q4.2_5	.131	.807	.125	.158
Q4.2_6	.236	.785	.110	.164
Q4.2_7	.266	.785	.105	.117
Q4.2_2	.316	.764	.157	.118
Q4.2_1	.341	.726	.195	.123
Q4.2_4	.006	.711	.171	.218
Q4.1b_2	.098	.147	.800	.232
Q4.1b_4	.285	.204	.743	.146
Q4.1b_3	.368	.134	.685	.114
Q4.1b_1	.348	.235	.634	.069
Q4.3_3	.000	.207	.091	.820
Q4.3_1	.031	.135	.216	.767
Q4.3_2	.090	.306	.088	.758

〈표 16〉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Entrepreneurship)’ 관련 새로운 요인변수 정의

분류	새로운 요인변수 정의	세부변수
4.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 (의도)	Q4.1a_1 / Q4.1a_2 / Q4.1a_3 / Q4.1a_4 / Q4.1a_5 / Q4.1a_6 / Q4.1b_5
	스킬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Q4.2_1 / Q4.2_2 / Q4.2_3 / Q4.2_4 / Q4.2_5 / Q4.2_6 / Q4.2_7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 (태도)	Q4.1b_1 / Q4.1b_2 / Q4.1b_3 / Q4.1b_4
	스킬 (통제위치)	Q4.3_1 / Q4.3_2 / Q4.3_3

요인분석을 통해서 변수의 유의성과 공통성을 확인하였으며, 4개의 요인의 변수들을 합산척도(Summated Scale) 방법을 활용하여 여러 개의 개별변수를 하나의 단일수치화 하여 교차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창업을 한 경우(능동적 창업가)’ 관련 요인분석 결과

총 1,154개의 응답 중에 Q2.3(기창업자 여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표본은 41개(결측치 제외)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은 최소 50개 이상 100개 수준이 되어야 정상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Active Entrepreneurs’ 설문변수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2.4. ‘(예비) 초기 창업가’ 관련 요인분석 결과

총 3개 설문요인의 변수 10개를 대상으로 KMO and Bartlett’s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표본적절성은 0.5보다 크고 유의확률은 0.05(95% 신뢰수준)보다 낮게 나타

났다. 해당 변수들의 요인분석을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17〉 ‘(예비) 초기 창업가’ 요인 KMO와 Bartlett의 검정 결과

표본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0.86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664.088
	자유도	45
	유의확률	0

다음으로 공통성(Communality) 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이 각 변수를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10개의 변수가 기준점인 0.4 보다 크므로 모든 변수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8〉 ‘(예비) 초기 창업가’ 요인 공통성(Communality) 분석 결과

	초기	추출
Q8.13a_1	1.000	.638
Q8.13a_2	1.000	.436
Q8.13a_3	1.000	.510
Q8.13b_1	1.000	.718
Q8.13b_2	1.000	.697
Q8.13b_3	1.000	.715
Q8.13b_4	1.000	.781
Q8.13c_1	1.000	.746
Q8.13c_2	1.000	.826
Q8.13c_3	1.000	.732

요인분석의 목적은 변수의 수를 줄이는 데 있으며 변수들의 공분산 및 고유값을 분석해본 결과, 총 2개의 대표요인으로 전체 자료의 68%를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9〉 ‘(예비) 초기 창업가’ 요인의 설명된 총분산

성분	초기 고유값			추출 제곱합 적재량			회전 제곱합 적재량		
	전체	% 분산	누적 %	전체	% 분산	누적 %	전체	% 분산	누적 %
1	5.364	53.637	53.637	5.364	53.637	53.637	4.359	43.595	43.595
2	1.436	14.361	67.998	1.436	14.361	67.998	2.440	24.403	67.998
3	.999	9.985	77.983						
4	.496	4.965	82.948						
5	.418	4.185	87.133						
6	.362	3.618	90.750						
7	.298	2.984	93.734						
8	.268	2.683	96.417						
9	.203	2.029	98.447						
10	.155	1.553	100.000						

요인추출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활용하였다. 요인회전 방법으로 가장 대중적인 기준인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Varimax)를 사용하여 3번 반복 계산한 결과 요인회전이 수렴되었다. 성분행렬(Component Matrix)을 통해 2개 요인으로 변수들의 그룹화를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구분하고 있는 위험감수성과 혁신성이 하나로 합쳐졌으며, 진취성이 두 번째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표 20〉 ‘(예비) 초기 창업가’ 요인 회전된 성분행렬(베리맥스) 분석 결과

	요인1	요인2
Q8.13b_4	.857	.218
Q8.13b_3	.833	.145
Q8.13b_1	.824	.200
Q8.13b_2	.822	.149
Q8.13a_1	.755	.259
Q8.13a_3	.671	.243
Q8.13a_2	.586	.304
Q8.13c_2	.080	.906
Q8.13c_3	.288	.806
Q8.13c_1	.352	.789

〈표 21〉 ‘(예비) 초기 창업가’ 관련 새로운 요인변수 정의

분류	새로운 요인변수 정의	세부변수
8. (예비) 초기 창업가	기업가적 지향성 (혁신&위험감수성)	Q8.13a_1 / Q8.13a_2 / Q8.13a_3 / Q8.13b_1 / Q8.13b_2 / Q8.13b_3 / Q8.13b_4
	기업가적 지향성 (진취성)	Q8.13c_1 / Q8.13c_2 / Q8.13c_3

요인분석을 통해서 변수의 유의성과 공통성을 확인하였으며, 2개의 요인의 변수들을 합산척도(Summated Scale) 방법을 활용하여 여러 개의 개별변수를 하나의 단일수치화 하여 교차분석에 활용하였다.

03

심층분석

3.1. 교차분석을 위한 주요 통계변수 설정

2장에서 도출한 주요 요인변수를 토대로 다음의 주요 통계변수를 활용하여 교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22〉 교차분석을 위한 통계변수 설정

분류	설문코드	주요 변수
인구 통계학적 특성 (전체)	Q1.2	응답자 학력 분포
	Q1.3	응답자 전공 분포
	Q6.2	응답자 연령 분포
	Q6.3	응답자 성별 분포
	Q6.4	응답자 혼인 여부
경력목표	Q2.1a	졸업 후 진로 계획
	Q2.1b	5년 후 진로 계획
	Q2.2	창업 의사(현재 고려 및 준비 여부)
	Q2.3	현재 창업 여부
(예비) 초기창업가 특성	Q8.1	창업 완료 계획(실제 시작 시점)
	Q8.2	졸업 후 주요 직장으로서의 창업 여부
	Q8.3	예비창업자 이전 창업 경험
	Q8.4	사업아이디어 발굴 시점
	Q8.5	코로나19로 인한 창업 계획 여부
	Q8.7	창업으로 준비 중인 사업 분야
	Q8.12	공동창업자 중 여성/친척/동료학생 여부

3.2. ‘대학(University)’ 요인변수 대상 주요 교차분석

‘대학’ 요인변수인 ‘대학 환경 및 교육효과’와 ‘대학의 지속가능한 목표’를 기준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합산척도(Summated Scale)에 대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23>과 같다.

- Q1.2) 응답자 학력 분포에서는 석사과정 학생이 다른 학위과정 학생보다 대학 교육환경과 지원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응답하였다.
- Q1.3) 응답자 전공 분포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제학, 법학, 경영 전공자가 교육환경과 지원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응답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대학의 지속가능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Q6.3) 응답자 성별 분포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대학 환경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대학의 지속가능한 목표 및 지원에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3> ‘대학(University)’ 요인변수 - 인구통계학적 특성 간 주요 교차분석 결과

변수		대학 환경 및 교육효과	대학의 지속가능한 목표
		합산척도 평균값	합산척도 평균값
Q1.2 응답자 학력 분포	학사	3.98	4.81
	석사	5.58	5.85
	박사	5.28	5.15
	기타	4.00	4.80
Q1.3 응답자 전공 분포	예술/인문	3.73	4.74
	경영	4.49	5.12
	컴퓨터/IT	3.94	4.70
	경제	4.90	5.15
	공학(건축 포함)	4.07	4.86
	의료/생명	3.95	4.81
	법학	4.28	4.67

변수		대학 환경 및 교육효과	대학의 지속가능한 목표
		합산척도 평균값	합산척도 평균값
	수학	3.82	4.92
	자연과학	3.93	4.61
	예술과학	3.99	4.80
	사회과학	3.89	4.72
	기타	4.29	5.00
Q6.3 응답자 성별 분포	남성	4.15	4.90
	여성	3.95	4.80

‘대학’ 요인변수인 ‘대학 환경 및 교육효과’와 ‘대학의 지속가능한 목표’를 기준으로 경력목표 특성 변수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합산척도(Summated Scale)에 대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24>와 같다.

- Q2.1a) 졸업 후 진로 계획에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의 경우 두 개 요인지표 모두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창업과 사업승계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대학 창업지원 환경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Q2.1b) 5년 후 진로 계획에서도 졸업 후 진로 계획과 비슷한 패턴을 나타냈으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의 경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미래에 창업과 관련된 관심이 다소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 Q2.2/Q2.3) 창업계획과 창업여부에서는 관련 수요에 따라 관심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 요인변수인 ‘대학 환경 및 교육효과’와 ‘대학의 지속가능한 목표’를 기준으로 (예비) 초기창업가의 특성 변수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합산척도(Summated Scale)에 대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25>

와 같다.

- Q8.1) 창업 완료 시점에서 학업 중 창업을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에 대학 창업 자원 활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 Q8.2) 졸업 후 주요 직장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창업 여부와 관계없이 큰 차이 없이 대학 창업교육 및 지원에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Q8.3) 기존 기창업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교육환경과 지원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응답하였다.
- Q8.5) 코로나19와 관련된 창업을 계획 중인 학생의 경우 시기적으로 많은 자원이 필요한 단계로 대학에서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 Q8.7) 주요 창업으로 준비하는 사업분야 중 대학의 요인과 관련이 큰 분야로 컨설팅과 관광/레저로 나타났다.

〈표 24〉 ‘대학(University)’ 요인변수 - 경력목표 특성 간 주요 교차분석 결과

변수		대학 환경 및 교육효과	대학의 지속가능한 목표
		합산척도 평균값	합산척도 평균값
Q2.1a 졸업 후 진로 계획	중소기업 취업 (1-49인)	3.89	4.76
	중견기업 취업 (50-249인)	4.21	4.88
	대기업 취업 (250인 이상)	4.01	4.96
	비영리기구 취업	4.39	4.67
	연구기관 취업 (학업 경력 개발)	4.02	4.65
	공공기관 취업	3.82	4.75
	창업	4.97	5.35

변수		대학 환경 및 교육효과	대학의 지속가능한 목표
		합산척도 평균값	합산척도 평균값
	부모님 사업승계	4.77	5.44
	기타 사업승계	4.17	4.00
	기타/아직 잘 모름	3.87	4.68
Q2.1b 5년 후 진로 계획	중소기업 취업 (1-49인)	4.00	5.15
	중견기업 취업 (50-249인)	3.96	4.83
	대기업 취업 (250인 이상)	4.14	5.01
	비영리기구 취업	4.49	5.13
	연구기관 취업 (학업 경력 개발)	4.17	4.75
	공공기관 취업	3.81	4.77
	창업	4.62	4.99
	부모님 사업승계	4.41	5.00
	기타 사업승계	4.00	4.26
	기타/아직 잘 모름	3.80	4.59
Q2.2 창업 의사	아니요	3.90	4.82
	예	4.44	4.91
Q2.3 현재 창업 여부	아니요	4.01	4.83
	예	4.89	5.02

〈표 25〉 ‘대학(University)’ 요인변수 - (예비) 초기창업가 특성 간 주요 교차분석 결과

변수		대학 환경 및 교육효과	대학의 지속가능한 목표
		합산척도 평균값	합산척도 평균값
Q8.1 창업 완료 계획	학업 중	4.79	5.28
	졸업 직후	4.68	4.76
	졸업 후 2년 내	4.61	4.88
	아직 잘 모르겠음	4.13	4.82
Q8.2 졸업 후 주요 직장으로서의 창업 여부	아니요	4.51	5.01
	예	4.48	4.98
	아직 잘 모르겠음	4.18	4.76
Q8.3 예비창업자 이전 창업 경험	아니요	4.30	4.87
	예	4.96	5.13
Q8.4 사업아이디어 발굴 시점	대학교 과정 중	4.88	5.20
	대학과 관련된 다른 형태	4.80	5.19
	대학과 상관없음	4.00	4.68
Q8.5 코로나19로 인한 창업 계획 여부	아니요	4.19	4.79
	예	4.84	5.20
Q8.7 창업으로 준비 중인 사업 분야	광고/디자인/ 마케팅	4.50	5.10
	건축 및 공학	4.53	4.78
	건설 공사	3.96	5.50
	컨설팅 (인적자원, 법률, 경영관리, 세금)	5.41	5.83
	교육 훈련	4.65	4.94
	금융 서비스 (은행, 보험, 투자, 부동산 등)	3.66	4.25

변수	대학 환경 및 교육효과	대학의 지속가능한 목표
	합산척도 평균값	합산척도 평균값
건강과 사회적 네트워크	4.38	4.82
ITC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포함)	4.24	4.92
제조업	4.65	5.14
관광/레저	5.20	5.73
무역 (도소매)	3.94	4.79
다른 서비스 (예 : 운송)	4.75	4.83
기타	3.94	4.51

3.3. ‘기업가정신 일반적인 생각’ 요인변수 대상 주요 교차분석

‘기업가정신의 일반적인 인식/생각’ 4개의 요인변수를 기준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합산척도(Summated Scale)에 대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26>과 같다.

- Q1.2) 응답자 학력 분포에서는 석사과정 학생이 다른 학위과정 학생보다 기업가적 의도, 태도, 통제위치 관점에서 주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창업을 위한 본인 스스로 능력인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에서는 박사과정 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Q1.3) 응답자 전공 분포에서는 기업가적 의도는 대부분의 전공 분포에서 낮게 나타났으며, 기업가적 태도와 자기효능감은 경제전공 학생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Q6.3) 응답자 성별 분포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대학 기업가적 의도/태도 및 스킬 관점에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자기 주도적인

성향을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가정신의 일반적인 인식/생각’ 4개의 요인변수를 기준으로 경력목표 특성 변수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합산척도(Summated Scale)에 대한 평균 값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27>과 같다.

- Q2.1a) 졸업 후 진로 계획에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의 경우 4개 요인지표 모두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창업과 사업승계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기업가적 의도와 태도, 관련 기업가적 스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Q2.1b) 5년 후 진로 계획에서도 졸업 후 진로 계획과 비슷한 패턴을 나타냈으며, 전반적인 4개 요인지표 모두 지표가 하락하여 졸업 이후에는 기업가정신과 창업과 관련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6> ‘기업가정신 일반적인 생각’ 요인변수 - 인구통계학적 특성 간 주요 교차분석 결과

변수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의도)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태도)	스킬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스킬 (통제위치)
		합산척도 평균값	합산척도 평균값	합산척도 평균값	합산척도 평균값
Q1.2 응답자 학력 분포	학사	2.93	4.14	3.87	4.84
	석사	4.55	5.33	4.76	5.94
	박사	3.29	4.75	5.57	5.00
	기타	3.15	4.23	4.10	4.79
Q1.3 응답자 전공 분포	예술/인문	2.65	4.06	3.82	4.68
	경영	3.07	4.23	4.08	4.97
	컴퓨터/IT	3.03	4.22	3.94	4.80
	경제	2.84	4.94	4.49	4.78
	공학 (건축 포함)	3.22	4.28	4.05	4.83

변수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의도)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태도)	스킬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스킬 (통제위치)
		합산척도 평균값	합산척도 평균값	합산척도 평균값	합산척도 평균값
	의료/생명	2.96	4.15	3.89	4.82
	법학	3.24	3.75	3.62	4.33
	수학	3.08	3.99	3.95	5.08
	자연과학	2.65	3.88	3.66	4.98
	예술과학	2.71	3.84	3.25	4.53
	사회과학	2.69	4.06	3.63	4.83
	기타	3.02	4.29	3.95	4.93
Q6.3 응답자 성별 분포	남성	3.19	4.27	4.06	4.91
	여성	2.80	4.08	3.77	4.78

〈표 27〉 기업가정신 일반적인 생각' 요인변수 - 경력목표 특성 간 주요 교차분석 결과

변수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의도)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태도)	스킬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스킬 (통제위치)
		합산척도 평균값	합산척도 평균값	합산척도 평균값	합산척도 평균값
Q2.1a 졸업 후 진로 계획	중소기업 취업 (1-49인)	3.24	4.18	3.91	4.56
	중견기업 취업 (50-249인)	3.07	4.18	4.13	4.82
	대기업 취업 (250인 이상)	2.85	4.20	4.01	5.03
	비영리기구 취업	3.60	5.00	4.00	4.44
	연구기관 취업 (학업 경력 개발)	2.71	4.18	4.06	5.02
	공공기관 취업	2.82	4.00	3.74	4.79

변수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의도)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태도)	스킬 (기업가적 자기효능감)	스킬 (통제위치)
		합산척도 평균값	합산척도 평균값	합산척도 평균값	합산척도 평균값
	창업	6.21	6.13	6.71	5.83
	부모님 사업승계	5.00	5.50	5.43	6.00
	기타 사업승계	-	-	-	-
	기타/아직 잘 모름	3.11	4.21	3.70	4.71
Q2.1b 5년 후 진로 계획	중소기업 취업 (1-49인)	2.77	4.45	3.45	4.83
	중견기업 취업 (50-249인)	3.00	4.14	3.87	4.75
	대기업 취업 (250인 이상)	2.97	4.24	4.16	5.03
	비영리기구 취업	3.11	4.97	3.89	5.04
	연구기관 취업 (학업 경력 개발)	3.02	4.18	4.22	5.00
	공공기관 취업	2.77	4.01	3.73	4.83
	창업	5.67	5.58	5.03	5.50
	부모님 사업승계	4.00	4.92	4.71	4.67
	기타 사업승계	3.05	3.50	3.33	4.67
	기타/아직 잘 모름	3.05	4.14	3.72	4.61

3.4. ‘(예비) 초기 창업가’ 요인변수 대상 주요 교차분석

‘(예비)초기창업가’의 주요 두 개의 기업가적 지향성인 ‘혁신&위험감수성’과 ‘진취성’의 요인변수를 기준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합산척도(Summated Scale)에 대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28>과 같다.

- Q1.2) 응답자 학력 분포에서는 학사/석사/박사 모두 두 가지 지향성이 높게 분석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박사과정 학생이 월등하게 높게 분석되었다.
- Q1.3) 응답자 전공 분포에서는 전반적인 전공에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혁신&위험감수성과 진취성 지향성은 경제전공 학생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Q6.3) 응답자 성별 분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남성의 기업가적 지향성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28> ‘(예비)초기창업가’ 요인변수 - 인구통계학적 특성 간 주요 교차분석 결과

변수		기업가적 지향성 (혁신&위험감수성)	기업가적 지향성 (진취성)
		합산척도 평균값	합산척도 평균값
Q1.2 응답자 학력 분포	학사	5.07	5.16
	석사	4.90	4.93
	박사	5.79	6.39
	기타	4.77	4.67
Q1.3 응답자 전공 분포	예술/인문	5.15	5.10
	경영	4.93	5.20
	컴퓨터/IT	5.30	5.42
	경제	5.83	6.04
	공학(건축 포함)	5.15	5.28
	의료/생명	4.94	5.04
	법학	4.00	4.00
	수학	3.86	5.33
	자연과학	5.22	4.79
	예술과학	4.74	4.93
사회과학	4.81	5.05	

변수		기업가적 지향성 (혁신&위험감수성)	기업가적 지향성 (진취성)
		합산척도 평균값	합산척도 평균값
	기타	5.01	4.85
Q6.3 응답자 성별 분포	남성	5.19	5.28
	여성	4.90	4.98

‘(예비)초기창업가’의 주요 두 개의 기업가적 지향성인 ‘혁신&위험감수성’과 ‘진취성’의 요인변수를 기준으로 경력목표 특성 변수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합산척도(Summated Scale)에 대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29>와 같다.

- Q2.1a) 졸업 후 진로 계획에서 창업과 함께 비영리기구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의 기업가적 지향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예비 창업가로서의 성향을 지니고 있음에도 중소기업/대기업 취업에 대한 목표 수치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 Q2.1b) 5년 후 진로 계획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이러한 기업가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예비) 초기창업가의 경우 비영리기구 취업에 대한 목표보다 중소기업/대기업이나 창업으로 진로를 설정할 수도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예비)초기창업가’의 주요 두 개의 기업가적 지향성인 ‘혁신&위험감수성’과 ‘진취성’의 요인변수를 기준으로 (예비) 초기창업가의 특성 변수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합산척도(Summated Scale)에 대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30>과 같다.

- Q8.1) 창업 계획 시점에서 기업가적 지향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졸업 후에도 창업을 계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 Q8.2) 졸업 후 주요 직장으로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창업 여부와

관계없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Q8.4) 사업아이디어를 발굴한 시점에 대해서 기업가적 지향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대학 외에도 다양한 외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Q8.5) 코로나19와 관련된 창업 여부에서는 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 Q8.7) 창업사업 분야로 기업가적 지향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컨설팅과 관광·레저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9〉 ‘(예비)초기창업가’ 요인변수 - 경력목표 특성 간 주요 교차분석 결과

변수		기업가적 지향성 (혁신&위험감수성)	기업가적 지향성 (진취성)
		합산척도 평균값	합산척도 평균값
Q2.1a 졸업 후 진로 계획	중소기업 취업 (1-49인)	5.13	5.15
	중견기업 취업 (50-249인)	5.05	5.16
	대기업 취업 (250인 이상)	4.87	5.12
	비영리기구 취업	6.43	6.00
	연구기관 취업 (학업 경력 개발)	5.50	5.63
	공공기관 취업	4.72	4.95
	창업	5.44	5.14
	부모님 사업승계	5.63	6.07
	기타 사업승계	3.64	5.33
	기타/아직 잘 모름	4.81	4.97
Q2.1b 5년 후 진로	중소기업 취업 (1-49인)	5.02	5.22

변수		기업가적 지향성 (혁신&위험감수성)	기업가적 지향성 (진취성)
		합산척도 평균값	합산척도 평균값
계획	중견기업 취업 (50-249인)	5.14	5.13
	대기업 취업 (250인 이상)	4.93	5.05
	비영리기구 취업	3.71	4.67
	연구기관 취업 (학업 경력 개발)	5.10	5.52
	공공기관 취업	4.54	5.15
	창업	5.35	5.21
	부모님 사업승계	5.33	5.78
	기타 사업승계	3.57	5.00
	기타/아직 잘 모름	4.81	4.76

〈표 30〉 ‘(예비)초기창업가’ 요인변수 - (예비) 초기창업가 특성 간 주요 교차분석 결과

변수		기업가적 지향성 (혁신&위험감수성)	기업가적 지향성 (진취성)
		합산척도 평균값	합산척도 평균값
Q8.1 창업 완료 계획	학업 중	5.42	5.51
	졸업 직후	4.92	5.00
	졸업 후 2년 내	5.42	5.42
	아직 잘 모르겠음	4.83	4.95
Q8.2 졸업 후 주요 직장으로서의 창업 여부	아니요	5.19	5.38
	예	5.24	5.32
	아직 잘 모르겠음	4.75	4.80
Q8.3 예비창업자 이전 창업 경험	아니요	5.02	5.11
	예	5.33	5.33

변수		기업가적 지향성 (혁신&위험감수성)	기업가적 지향성 (진취성)
		합산척도 평균값	합산척도 평균값
Q8.4 사업아이디어 발굴 시점	대학교 과정 중	5.17	5.15
	대학과 관련된 다른 형태	5.18	5.01
	대학과 상관없음	4.96	5.16
Q8.5 코로나19로 인한 창업 계획 여부	아니요	4.96	5.04
	예	5.28	5.39
Q8.7 창업으로 준비 중인 사업 분야	광고/디자인/마케팅	5.09	5.22
	건축 및 공학	5.28	5.39
	건설 공사	4.10	5.56
	컨설팅 (인적자원, 법률, 경영관리, 세금)	5.36	5.63
	교육 훈련	4.89	5.12
	금융 서비스 (은행, 보험, 투자, 부동산 등)	5.21	5.58
	건강과 사회적 네트워크	5.14	5.04
	ITC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포함)	5.32	5.40
	제조업	4.94	4.69
	관광/레저	5.86	5.50
	무역 (도소매)	4.55	5.04
	다른 서비스 (예 : 운송)	5.82	5.44
	기타	4.78	4.93

04

요약 및 결론

2021년 글로벌 대학생 기업가정신 연구에서는 심층분석을 수행하여 주요 변수 간의 연관성을 심도 있게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분석 방법의 절차를 토대로 심층분석을 진행하였다.

- 개별 변수(설문항목)를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수행하여 수집된 자료에서 추출된 요인이 각 설문변수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주요 변수의 수를 줄이기 위한 요인부하량 행렬을 확인하고 주요 설문변수들을 대표할 수 있는 요인변수를 도출한다.
- 도출된 대표 요인변수들에 대해 하나의 단일한 값을 갖도록 평균 수치화하여 합산척도(Summated Scale)를 도출한다.
- 요인변수들의 합산척도를 기준으로 기존에 제시된 통계학적 특성들인 “인구 통계학적 특성”, “경력목표 특성”, “(예비)초기창업가 특성”과의 교차분석을 수행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

주요 분석 결과, ‘대학(University)’과 관련된 총 4개 설문요인의 변수 14개를 대상으로 2개의 대표 요인변수를 설정하였으며, ‘대학 환경 및 교육효과’와 ‘대학의 지속가능한 목표’ 두 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Entrepreneurship)’과 관련된 총 4개 설문요인의 변수 21개를 대상으로 4개의 대표 요인변수를 설정하였으며,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의도)’, ‘스킬(기업가적 자기효능감)’,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태도)’, ‘스킬(통제위치)’ 네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세 번째로 ‘창업을 한 경우(능동적 창업가)’와 관련된 요인변수를 도출하

고자 했으나 표본이 50개 미만으로 유의미한 분석을 수행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예비) 초기창업가’와 관련된 총 3개 설문요인의 변수 10개를 대상으로 2개의 대표 요인변수를 설정하였으며, ‘기업가적 지향성(혁신&위험감수성)’과 ‘기업가적 지향성(진취성)’ 두 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앞서 도출된 3가지 범주(대학, 기업가정신, 예비창업가)의 대표요인들을 토대로 통계변수(인구통계학적 특성, 경력목표, 초기창업가 특성 등) 간의 교차분석을 수행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응답자의 학력 관점에서는 석사과정 학생이 다른 학위과정 학생보다 기업가적 의도, 태도, 통제위치 관점에서 주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창업을 위한 본인 스스로 능력인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에서는 박사과정 학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초기창업가 집단에서는 박사과정 학생의 기업가적 지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창업을 위한 본인 스스로의 능력인 기업가적 자기효능감이 월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졸업 후와 5년 후 진로 계획의 차이를 살펴보면 미래에 창업에 관한 관심이 있고 졸업 이후에도 대학 창업지원 환경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졸업 후 바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가의 경우 5년 후의 진로 계획에서 창업에 대한 혁신과 위험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가 클 것으로 분석되었다.
- 창업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일수록 대학의 창업자원 활용 가능성이 높아 향후 창업을 고려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졸업 이후에 직업으로서의 창업은 다소 낮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기업가적 지향성이 높은 예비창업가일수록 졸업 후에도 창업을 계획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심층분석을 통해 교차분석 이외에 다양한 구조모형을 토대로 분석이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변수들을 토대로 다양한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가장 많은 변수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창업을 한 경우(능동적 창업가)’의 표본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향후 설문조사 진행 시 현재 대학 창업지원 부서에 단순 요청으로 이루어지는 한계점을 보완하여 실제 대학생 창업자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 PART 03 •

부록
GUESSS 2021 설문지

| 2021 글로벌 대학생 기업가정신 조사(GUESSS) |

부록

GUESSS 2021 설문지

1. 학업 관련

Q1.1 귀하의 대학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Q1.2 귀하의 현재 학위 과정은?

학사

석사

박사

기타(예 : MBA)

Q1.3 귀하의 현재 전공은?

예술/인문(문화, 역사, 언어, 철학, 종교 등)

경영

컴퓨터/IT

경제

공학(건축 포함)

의료/생명

법학

수학

자연과학

예술과학(미술, 디자인, 연극, 음악 등)

사회과학(심리학, 정치학, 교육학 등)

기타

2. 경력 목표

Q2.1a 귀하가 계획한 졸업 후 진로는 무엇입니까?

- 중소기업 취업(1-49인)
- 중견기업 취업(50-249인)
- 대기업 취업(250인 이상)
- 비영리기구 취업
- 연구기관 취업(학업 경력 개발 목적)
- 공공기관 취업
- 창업
- 부모님 사업 승계
- 기타 사업 승계
- 기타/아직 잘 모름

Q2.1b 귀하가 계획한 5년 후 진로는 무엇입니까?

- 중소기업 취업(1-49인)
- 중견기업 취업(50-249인)
- 대기업 취업(250인 이상)
- 비영리기구 취업
- 연구기관 취업(학업 경력 개발 목적)
- 공공기관 취업
- 창업
- 부모님 사업 승계
- 기타 사업 승계
- 기타/아직 잘 모름

Q2.2 귀하는 현재 창업을 고려하거나 창업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Q2.3 귀하는 이미 창업을 하여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귀하는 직업선택에 관한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전혀 그렇지 않음, 7=매우 그러함).

Q2.4_1 나는 직업이나 회사를 선택할 때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다.

Q2.4_2 나는 고위험/고수익 직업보다 고용안정성이 높은 직업을 선호한다.

Q2.4_3 나는 직업에 대한 위험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상황으로 인식한다.

3. 대학 관련

귀하의 대학 환경에 관한 다음의 문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전혀 그렇지 않음, 2=매우 그러함)

Q3.1_1 대학은 나에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하도록 자극한다.

Q3.1_2 대학은 창업가의 길을 걷는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Q3.1_3 대학은 학생들의 창업 활동을 권장한다.

귀하의 학업/수업에 관한 다음의 문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전혀 그렇지 않음, 2=매우 그러함)

Q3.2_1 창업가의 태도, 가치 및 동기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Q3.2_2 사업 개시를 위해 필요한 활동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었다.

Q3.2_3 사업개시를 위한 실무 경영 능력이 향상되었다.

Q3.2_4 네트워크 개발능력이 향상되었다.

Q3.2_5 기회 판별 능력이 향상되었다.

다음 중 귀하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Q3.3_1 나는 지금까지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

Q3.3_2 나는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를 선택과목으로 들은 적이 있다.

Q3.3_3 나는 기업가정신 관련 강의를 필수과목으로 들은 적이 있다.

Q3.3_4 나는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Q3.3_5 재학 중인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기업가정신에 관한 명성이 높기 때문이다.

귀하는 대학에 관한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전혀 그렇지 않음, 7=매우 그러함).

Q3.4_1 나의 대학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교육을 동등하게 제공한다.

Q3.4_2 나의 대학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Q3.4_3 나의 대학은 성별, 나이, 민족, 종교, 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한다.

귀하는 대학의 지원에 관한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전혀 그렇지 않음, 7=매우 그러함)

Q3.5_1 나의 대학은 연구, 기술, 혁신, 기업가정신의 개발을 지원한다.

Q3.5_2 나의 대학은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원한다.

Q3.5_3 나의 대학은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지원한다.

4. 기업가정신 일반적 생각

다음 문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
 창업가란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Q4.1a_1 나는 창업가가 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 Q4.1a_2 나의 경력 목표는 창업가가 되는 것이다.
- Q4.1a_3 나는 사업 개시와 운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할 것이다.
- Q4.1a_4 나는 향후 창업을 하고자 결심했다.
- Q4.1a_5 나는 사업 개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
- Q4.1a_6 나는 훗날 창업할 뚜렷한 의지를 갖고 있다.

다음의 문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

- Q4.1b_1 창업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 Q4.1b_2 창업은 매력적인 경력이 될 것이다.
- Q4.1b_3 나에게 기회와 자원이 있다면 창업을 할 것이다.
- Q4.1b_4 창업은 높은 보상을 제공할 것이다.,
- Q4.1b_5 여러 선택 중에서 창업이 가장 나을 것 같다.

다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귀하의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 미숙함, 7=매우 능숙함)

- Q4.2_1 새로운 사업 기회 발견
- Q4.2_2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Q4.2_3 기업 내부 혁신 관리
- Q4.2_4 지휘 및 의사소통
- Q4.2_5 네트워크 개발능력이 향상되었다.
- Q4.2_6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시제품 상업화
- Q4.2_7 기업 경영

다음 문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

Q4.3_1 나는 나의 개인적 관심사와 욕구에 충실한 편이다.

Q4.3_2 나는 수립한 계획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만든다.

Q4.3_3 나는 나의 삶에서 일어난 거의 모든 일들에 대하여 결정권을 갖고 있다.

5. 가정 환경

Q5.1 귀하의 부모님은 사업을 하십니까?

아니요

예 (아버지만 해당)

예 (어머니만 해당)

예 (두 분 모두 해당)

Q5.2 귀하의 부모님은 기업 오너 혹은 대주주입니까?

아니요

예 (아버지만 해당)

예 (어머니만 해당)

예 (두 분 모두 해당)

귀하께서 창업을 한다면, 주변 사람들의 예상된 반응은 어떻습니까?

(1=매우 부정적, 2=매우 긍정적)

Q5.3_1 귀하의 가족(친지)

Q5.3_2 귀하의 친구

Q5.3_3 귀하의 학교 동기 및 선후배

6. 응답자 정보

귀하는 다음 항목들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

Q6.1_1 대부분의 면에서 나의 인생은 내 이상에 가깝다.

Q6.1_2 나의 인생의 조건은 훌륭하다.

Q6.1_3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한다.

Q6.1_4 지금까지 나는 인생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었다.

Q6.1_5 만약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나는 거의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Q6.2 귀하의 출생연도는?

Q6.3 귀하의 성별은?

남성

여성

그 외

Q6.4 귀하의 혼인 여부는?

미혼

기혼

그 외

Q6.5 귀하의 출생 국가는?

7. 창업을 한 경우(능동적 창업가)

귀하는 이전에 기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기업을 운영했다면,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을 기준으로 다음 문항에 응답해주시요.

Q7.1 귀사의 설립 연도는?

Q7.2 귀사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유효 숫자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 5명)

Q7.3 귀하의 회사 지분율은?

0-49%

50%

51-100%

Q7.4 귀사가 졸업 후에도 귀하에게 주요 직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니요

아직 잘 모르겠음

Q7.5 COVID-19(코로나 19)의 영향때문에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예

아니요

Q7.6 이전에 다른 사업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Q7.7 귀사의 주요 사업 분야는?

- 광고/디자인/마케팅
- 건축 및 공학
- 건설 공사
- 컨설팅 (인적자원, 법률, 경영관리, 세금)
- 교육 훈련
- 금융 서비스(은행, 보험, 투자, 부동산 등)
- 건강과 사회적 네트워크
- ITC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포함)
- 제조업
- 관광/레저
- 무역 (도소매)
- 다른 서비스(예 : 운송)
- 기타

Q7.8a 귀하의 사업에는 몇 명의 공동 소유자가 있습니까?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이상

Q7.8b 공동 소유자 중 여성이 있습니까?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이상

Q7.8c 공동 소유자 중 친척이 있습니까?

- 0명
- 1명
- 2명
- 3명
- 4명 이상

Q7.8d 공동 소유자 중 학우가 있습니까?

- 0
- 1
- 2
- 3
- >3

귀하의 창업에 대하여 다음 항목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

Q7.9a_1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 위하여 창업하였다.

Q7.9a_2 사업으로 내 경력을 쌓기 위해서 창업하였다.

Q7.9a_3 나와 가장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친구, 동료, 클럽, 커뮤니티 등)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업하였다.

Q7.9a_4 나와 가장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친구, 동료, 클럽, 커뮤니티 등)의 활동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창업하였다.

Q7.9a_5 개인사업에서 다루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사회적 불평등, 환경보호 등)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업하였다.

Q7.9a_6 세상이 운영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창업하였다.

귀하는 창업자로서 다음 항목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

Q7.9b_1 견고한 경영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것이 중요하다.

Q7.9b_2 사업의 재정적 전망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Q7.9b_3 나와 가장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친구, 동료, 클럽, 커뮤니티 등)에게 유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Q7.9b_4 고객들에게 관점, 관심사,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Q7.9b_5 세계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Q7.9b_6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 사회정의 추구, 환경 보호)

귀하는 회사 운영에 대하여 다음 항목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

Q7.9c_1 회사가 경쟁에서 무엇을 이루고 성과를 거둘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Q7.9c_2 사업 영역에서 강력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다른 회사보다 훨씬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Q7.9c_3 나와 가장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친구, 동료, 클럽, 커뮤니티 등)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Q7.9c_4 나와 가장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친구, 동료, 클럽, 커뮤니티 등)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Q7.9c_5 회사가 사회 전반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Q7.9c_6 개인회사가 사회적 문제(사회 정의, 환경보호 등)를 실제로 해결할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귀하는 창업가로서 경험과 관련된 다음 항목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

Q7.10a_1 나는 시간에 쫓기고 바쁘다.

- Q7.10a_2 나는 동료들이 그만두겠다고 말한 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다.
Q7.10a_3 나는 항상 바쁘고 많은 일에 손을 대고 있다.
Q7.10a_4 나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취미생활, 여가활동을 하는것 보다 일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Q7.10a_5 나는 점심을 먹으며 전화 통화를 하고 메모를 쓰는 등 한번에 두세가지 일을 한다.

귀하는 창업가로서 경험과 관련된 다음의 항목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

- Q7.10b_1 내가 하는 일이 즐겁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하는것이 중요하다.
Q7.10b_2 가끔 내 안의 무언가가 나를 열심히 일하도록 만든다.
Q7.10b_3 즐겁지 않더라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든다.
Q7.10b_4 나는 쉬고 있으면 죄책감을 느낀다.
Q7.10b_5 일하지 않을 때는 긴장을 풀기가 어렵다.

귀하는 창업가로서 행동과 관련된 다음의 항목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

- Q7.11a_1 나는 내 방식대로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경향이 있다.
Q7.11a_2 나는 내 방식대로 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거나 거짓말을 했다.
Q7.11a_3 나는 내 방식대로 하기 위해 아침을 해 왔다.
Q7.11a_4 나는 내 목적을 위해 다른사람을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귀하는 창업가로서 행동과 관련된 다음의 항목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

- Q7.11b_1 나는 별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Q7.11b_2 나는 내가 행동의 도덕성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Q7.11b_3 나는 냉담하거나 무신경한 경향이 있다.
Q7.11b_4 나는 냉소적인 경향이 있다.

귀하는 창업가로서 행동과 관련된 다음의 항목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

Q7.11c_1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Q7.11c_2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경향이 있다.

Q7.11c_3 나는 명성이나 지위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Q7.11c_4 나는 다른 사람들의 특별한 호의나 대우를 받기를 기대하는 경향이 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경쟁사 대비 귀사의 성과 정도는? (1=매우 못함, 7=매우 잘함)

Q7.12_1 매출 성장

Q7.12_2 시장 점유율 증가

Q7.12_3 이익 증가

Q7.12_4 고용창출

Q7.12_5 혁신성

귀하는 가족의 지원과 관련된 다음의 항목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

Q7.13a_1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족들이 걱정한다.

Q7.13a_2 사업때문에 좌절했을 때 가족들은 이해하려고 한다.

Q7.13a_3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나의 사업에 관심이 많다.

Q7.13a_4 내 사업에 대해 이야기 할때 가족들은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귀하는 가족의 지원과 관련된 다음의 항목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

Q7.15b_1 가족들은 주로 대가 없이 나의 사업을 돕는다.

Q7.15b_2 필요한 경우 가족들이 나와 내 직원들을 대신할 수 있다.

Q7.15b_3 가족들은 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 유용한 피드백을 준다.

Q7.15b_4 가족들은 기대한 것 보다 내 사업에 더 많은 도움을 준다.

Q7.15b_5 가족들은 나의 사업을 자주 도와준다.

8. 창업을 계획한 경우(초기 창업가)

귀하는 창업할 예정이라 응답하였습니다. 다음 문항에 대답하여 주십시오.

Q8.1 언제 창업을 완료할 계획입니까?(언제 실제로 회사를 시작 할 것입니까?)

- 학업 중
- 졸업 직후
- 졸업 후 2년 내
- 아직 잘 모르겠음

Q8.2 창업할 회사는 졸업 후 귀하에게 주요 직장이 될 것입니까?

- 예
- 아니요
- 아직 잘 모르겠음

Q8.3 귀하는 이전에 다른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Q8.4 창업 사업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대학교 과정 중
- 대학과 관련된 다른 형태
- 대학과 상관 없음

Q8.5 COVID-19(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창업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요

Q8.6 사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과 사업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 중, 귀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가능한 한 사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
- 사업의 최대 소유권 및 지배권을 유지하는 것

Q8.7 창업할 회사의 주요 사업 분야는?

- 광고/디자인/마케팅
- 건축 및 공학
- 건설 공사
- 컨설팅 (인적자원, 법률, 경영관리, 세금)
- 교육 훈련
- 금융 서비스(은행, 보험, 투자, 부동산 등)
- 건강과 사회적 네트워크
- ITC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포함)
- 제조업
- 관광/레저
- 무역 (도소매)
- 다른 서비스(예 : 운송)
- 기타

창업을 위해 이미 시작한 활동은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 Q8.8_1 잠재고객과 제품 및 비즈니스 아이디어 논의
- Q8.8_2 시장 및 경쟁자에 대한 정보 수집
- Q8.8_3 사업계획서 작성
- Q8.8_4 제품/서비스 개발
- Q8.8_5 마케팅 및 홍보활동
- Q8.8_6 사업에 필요한 재료, 장비, 설비 구매
- Q8.8_7 외부 자금 조달

Q8.8_8 특허, 저작권 및 상표 출원

Q8.8_9 사업 등록

Q8.8_10 제품/서비스 판매

Q8.8_0 아무것도 하지 않음

Q8.9 귀하는 단독 창업 혹은 공동 창업할 생각이십니까?

단독 창업

1명의 공동창업자와 함께

2명의 공동 창업자와 함께

3명 이상의 공동 창업자와 함께

Q8.10 창업할 회사에서 귀하의 지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0-49% (minority owner)

50%

51-100% (majority owner)

Q8.11 단독 창업을 선택한 이유는?

자영업이므로 공동 창업자가 필요하지 않다.

공동 창업자 없이,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

공동 창업자를 찾아보았지만 적합한 사람이 없었다.

공동 창업자를 찾아보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다.

해당 없음

Q8.12a 공동 창업자 중 여성이 있습니까?

없음

1명

2명

3명

4명 이상

Q8.12b 공동 창업자 중 친척이 있습니까?

- 없음
- 1명
- 2명
- 3명
- 4명 이상

Q8.12c 공동 창업자 중 동료 학생이 있습니까?

- 없음
- 1명
- 2명
- 3명
- 4명 이상

귀하는 다음의 항목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

Q8.13a_1 나는 미지의 세계로 과감히 뛰어드는 것을 좋아한다.

Q8.13a_2 나는 고수익을 낼수 있는것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할 용의가 있다.

Q8.13a_3 나는 위험이 수반되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귀하는 다음의 항목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

Q8.13b_1 나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꼭 위험하지 않은 새롭고 특이한 활동을 시도한다.

Q8.13b_2 나는 일반적으로 이전에 창업에 시도되었던 접근법 보다는 독특한 접근법을 선호한다.

Q8.13b_3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보다 나만의 독특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것을 선호한다.

Q8.13b_4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보다 나만의 실험과 독창적 접근법을 선호한다.

귀하는 다음의 항목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

Q8.13c_1 나는 보통 미래의 문제나 필요, 또는 변화를 예상하고 행동한다.

Q8.13c_2 나는 프로젝트를 미리 계획하는 경향이 있다.

Q8.13c_3 나는 다른사람이 할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것 보다 “단계적/점진적”
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것을 선호한다.

9. 부모님 사업

귀하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분께서 자영업 혹은 다수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계신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신다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을
기준으로 다음 문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Q9.1 해당 회사는 언제 설립되었습니까? 유효 숫자로 응답해 주십시오(예 : 1951년)

Q9.2 해당 회사의 정규직 직원 수는? 유효 숫자로 응답해 주십시오(예 : 5명)

Q9.3 귀하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께서 회사 운영을 주도하고 계십니까?

예

아니요

Q9.4 귀하의 가족이 보유한 회사 지분율은?

0-49%

50%

51-100%

Q9.5 귀하는 개인적으로 회사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Q9.6 귀하는 이 회사를 '가업'이라고 생각하나요?

- 예
- 아니요

Q9.7 이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나요?

- 예
- 아니요

Q9.8 귀하의 형제 및 자매는?

- 0명(없음)
- 1명
- 2명 이상

Q9.9 이 회사의 주요 사업 분야는?

- 광고/디자인/마케팅
- 건축 및 공학
- 건설 공사
- 컨설팅 (인적자원, 법률, 경영관리, 세금)
- 교육 훈련
- 금융 서비스(은행, 보험, 투자, 부동산 등)
- 건강과 사회적 네트워크
- ITC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포함)
- 제조업
- 관광/레저
- 무역 (도소매)
- 다른 서비스(예 : 운송)
- 기타

다음 문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전혀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함)

Q9.10_1 나는 부모님의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Q9.10_2 부모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이 나의 목표이다.

Q9.10_3 나는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Q9.10_4 나는 향후 부모님 사업을 승계하기로 결심했다.

Q9.10_5 나는 부모님 사업을 승계할 생각을 진지하게 하고 있다.

Q9.10_6 나는 언젠가 부모님 사업을 이어갈 생각이 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지난 3년 간 경쟁사 대비 부모님 회사의 성과 정도는? (1=매우 못함, 7=매우 잘함)

Q9.11_1 매출 성장

Q9.11_2 시장 점유율 증가

Q9.11_3 이익 증가

Q9.11_4 고용 창출

Q9.11_5 혁신성

10. 귀하와 귀하의 부모님의 사업

귀하는 귀하의 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적어도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시거나 사업에 높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두 사업간의 관계에 대한 항목입니다.

Q10.1 두 사업은 같은 시장/산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요

Q10.2 귀하의 부모님은 귀하의 사업에 지분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예

아니요

Q10.3 두 사업체 사이에 관련 사업거래가 있습니까?

예

아니요

11. 마지막 섹션

설문에 응답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설문 결과를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Q11.2 향후 설문조사에도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아니요

집필위원

성상현 | 경상대학교 교수

김영수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사무총장

이윤석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센터장

김혜람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매니저

2021 글로벌 대학생 기업가정신 조사(GUESSS)

발행일	2021년 11월
발행	남민우
발행처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주소	(0659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5길 16, 2F
전화	02-2156-2293
팩스	02-2156-2290
홈페이지	www.koef.or.kr
인쇄	경성문화사 (TEL 02·786·2999)
I S B N	979-11-970042-2-3

* 본 보고서의 판권과 내용은 발행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전재하거나 복제 배포할 수 없습니다.

2021 글로벌 대학생 기업가정신 조사

2021 Global University Entrepreneurial Spirit Students' Survey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2F(서초동, 브이알빌딩)
TEL.02-2156-2293 FAX.02-2156-2290 www.koef.or.kr

